

# 두번째 삶을 살아가

주님을 찾는  
평신도의 삶의  
이야기

저자: 보아너게





# 두번째 삶을 살아라

주님을 찾는 평신도의 삶의 이야기

저자: 보아너게





## 두번째 삶을 살아라

초 판 2017 년 5 월 31 일

개정판 2019 년 2 월 1 일

지은이 보아너게

출판사 펴플

출판등록 제 300-2012-167 호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가 1 번지

대표전화 1544-1900

홈페이지 [www.kyobobook.co.kr](http://www.kyobobook.co.kr)

© Boanuge, No rights reserved.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실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목차

죽음.....	1
증인.....	14
기억.....	20
전진교회.....	29
사랑의교회.....	34
이유.....	42
질문.....	47
안디옥교회.....	56
바르샤바한인교회.....	63
성경.....	70
북한.....	75
폴란드.....	79
영국.....	84
영어.....	93
자유의지.....	101
구원.....	107
바르샤바공대.....	117
군대.....	132
인터뷰.....	140
세계로선교회.....	146
성경암송 60구절.....	151
캠퍼스전도.....	178
포항공대.....	202
효자교회.....	215
인터콥.....	217
포항공대교회.....	225
전자통신연구원.....	228
늘사랑교회.....	234
분당우리교회.....	239
만나교회.....	244
더블린트리니티대학.....	246
더블린한인교회.....	249
세계성서공회연합회.....	252
바스한인교회.....	256
기적.....	258
인도.....	264





## 죽음

내 이름은 승화, 난 죽었다.

그토록 날 두렵게 하던 죽음...

난 죽음 뒤에 혹 있을지 모르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 특히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절대 지옥에는 가기 싫다고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을 붙들고 제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느순간 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 터널의 벽에는 군데 군데 푸르스름한 빛들이 있었고, 나는 이 빛들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지는 않다.

어느순간 나는 풍경사진으로 보았던 것 같은 초록빛 들판이  
펼쳐져 있는 동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다니 다행이다.

죽기전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나는 죽음  
이후 천국에 내가 와 있다는 것에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나의 몸은 병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이곳에서의 내 몸은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있는 곳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터벅터벅 정해진 방향없이 그냥 앞으로 걸었다.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것 같은데 배가 고프다는 느낌도 몸이  
피곤하다는 느낌도 전혀 나지 않았다.

어느 시골 동산을 걷고 있는 느낌을 주는 천국이었다.

저 멀리서 나는 하얀 문이 동산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거대한 집이 있는 것도 문과 연결된 어떤 건물이 있는것도 아니었다.

난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멀리보이는 줄의 제일 앞부분에는 심판대가 있었다.  
한사람 한사람 세상에 살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받는 장소였다.

다행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약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

단지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 받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보상을 책정하는 곳이었다.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대를 거치는지는 모른다.  
아마도 이곳 초록동산이 아니라 뜨거운 화염이 가득한 어두운 장소일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이곳이 어떠한 장소인지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난 줄서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명 한명 바라보았다.

여러 다양한 피부의 사람들이 다양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 중 눈에 띄는 한사람이 있었다.

고등학교시절 폴란드에 살 때 교회 청년부에서 알던 형이었다.

민국이형,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에 위치한 쇼팽음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기 위해 유학왔던 형이었다.

프레드릭 쇼팽, 1810 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녹턴 야상곡, 즉흥 환상곡, 빗방울 전주곡 등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음악가이다.

폴란드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해 쇼팽음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 이곳에 음악을 배우기 위해 오는 유학생들이 꾸준히 있다.

민국이 형은 내가 다니던 폴란드 바르샤바 한인교회 청년부에 출석했었다.

그 당시 형에 대한 나의 기억은 신앙심과는 거리가 먼, 교회에 같은 음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또래들이 있기에 놀러온다는 느낌을 받았던 형이었다.

당시 내성적이던 나와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소위 잘 놀던 형이었다.

폴란드에서 군대에 가기위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오랜기간 소식을 몰랐었는데 이곳에서 볼 줄은 몰랐다.

나는 형에게로 가까이 가 보았다.

민국이 형은 울고 있었다.

난 속으로 이 형이 이곳 천국에 와있는것이 좀 의외다 라고 생각했다.

"형, 오랜만이에요."

"아, 승화구나." 훌쩍거리며 형이 대답했다.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근데 이곳에서는 오래되어 희미해진 기억들이 순간 순간 또렷이 기억났다.

"형도 천국에 오셨군요. 다행이네요. 근데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그렇지? 나도 내가 천국에 올 줄은 몰랐는데, 나를 기억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었어."

형은 나에게 자기가 왜 우는지 설명해주었다.

어렸을 적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은 기억이 있다고 한다.

천국은 죄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짓게 된다.

굳이 행동으로 나쁜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등의 생각의 죄도 안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

죄가 있다면 천국에는 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아무도 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실 방법을 찾아 주셨다.

바로 우리의 죄 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우리처럼 죄가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 치뤄줄 수는 없다.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신이라면 전능한 존재일텐데, 왜 그냥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지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도록 만들었을까?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던데, 왜 우리를 벌하는거지?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나에게 하얀 날개를 가진 존재가 다가왔다.

살아있을 때 천사는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었다.

좀 잘생긴 듯한 중성적 이미지를 가진 인간 형상의 외모에 약간 빛이 나는 듯한 날개가 양쪽으로 살짝 접힌모습으로 달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네. 승화님이시죠? 저는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천사처럼 보이는 존재가 대답했다.

"제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혹시 천사이신가요?"

"네. 전 이곳에 온 사람들의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승화님이 궁금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려고 왔어요." 천사가 말했다.

"전 아직 아무말도 안했는데요?"

"이곳에서는 꼭 말하지 않아도 서로 대화가 가능하답니다.  
언어로 얘기하던 습관이 있어서 말로 표현할 때도 많지만,  
느낌이나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언어 없이도  
소통이 가능해요."

'오 이걸 신기한데, 근데 생각이 다 들통이나면 좀  
부끄러울때도 있겠군' 나는 생각했다.

"하하, 처음 알게되신 분들은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의 생각들 중에 그렇게  
부끄러울 것은 없어요."

"아, 제 생각을 들으셨군요."

"네. 그리고 혹 정말 원치 않는다는 의지가 있다면 생각들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제 생각을 꼭 다른 사람이 알게되면 안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해본것 같네요."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천사가 말했다.



"주님의 성품에는 자비로움과 사랑이 있기에 인간들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은 또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기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어떤 강도가 은행에서 1 천만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훔치는 가운데 손님들 중 누군가가 다치기도 했구요. 은행에 있던 카메라와 목격자의 증언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졌고 이 범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로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판사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판사에게 판사님 강도짓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훔친 돈도 다 돌려드렸고 다친 사람도 다 낫을텐데 이대로 저를 풀어주신다면 다시는 강도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을때"

"판사가 만일 그냥 그를 풀어 준다면 공정한 판사일까요? 판사는 그가 지켜야할 공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판사도 정의 때문에 범행을 벌해야 하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주님은 어떨까요."

천사의 말을 들으며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죄 안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사람은 없을텐데 우리는 다 벌을 받아야 겠네요?"

난 웬지 욕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미카엘이라고 소개했던 천사에게 되물었다.

미카엘은 다른 얘기를 해주었다.

"예전 로마군과 게르만족이 싸우던 중 중요한 임무를 띄고 로마군의 베넷콜만 장군이 병사들과 병사들의 가족을 데리고 추운 산길을 몇일째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동중 자꾸 식량이 없어지는 김새가 있자 장군은 식량에 손을 대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식량을 담당하던 부하가 장군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장군님 식량을 훔쳐가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장군은 뭐가 그분이냐며 부하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자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장군님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몇몇 가족이 연류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은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공포한대로 어머니와 잡힌 무리들을 엄벌에 처한다고 발표했어요."

"장군의 어머니와 연류된 사람들이 채찍에 맞는 형벌을 받게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장군은 잠깐 이라고 외치고 이 부대를 대표하는 내가 대신 벌을 받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잡힌 사람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어요."

"만약 같은 죄가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겠다고 말한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없는 그분 자신이 제물되어서 고통 당하시고 죽음 당하심으로써 인간들이 치뤄야할 죄 값을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럼 이제 모든 인간들은 죄값을 대신 치루었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나는 미카엘에게 물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죄값이 다 치뤄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간들의 죄값을 치뤄주시기 위해서 제물되어 주신 것은 귀신들도 잘 알고 떨고 있어요. 주님은 스스로 제물 되시면서 각각의 인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흠 없는 제물로한 제사를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 사람만이 그 죄를 용서받고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어요. 단지 이러한 사실을 형식적으로만 알고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께 의롭다 함을 받지는 못한답니다."

"예전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다 주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한해를 마무리 하며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었어요. 둘다 겉으로 보기에 는 같은 제사를 지냈지만 가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분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때 그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단지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이 제물 되어주신 제사를 지낸 사람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꺼예요."

"그렇군요." 나는 미카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순간 미카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국이 형의 애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것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야."

"어린시절 친구를 따라 가게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 이후 그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즐기며 마음 편한대로 살았었어."

"근데 이런 나를, 어린시절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

형은 계속 감사하다며 줄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난 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난 하얀문 밖으로 다시 나왔다.

초록빛 동산, 난 이곳이 천국의 중심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천국의 변두리 지역으로 보이는 이곳, 하지만 어디가 되었건 내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다.

## 증인

천천이 걸음을 옮기며 언덕을 지나고 있었는데, 언덕 내려가는 오른쪽 아래부분에 호수가 있는 것이 보였다.

강보다는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호수가에 사람들이 모여 호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궁금해진 나는 호수가로 내려가 보았다.

근처에 다가 갈 수록 호수가 정말 푸른빛으로 아름다운 색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근데 여기도 태양이 있을까?

별 생각없이 밝은 푸른 하늘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난 문득 여기도 눈부신 태양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하늘을 쳐다보고 왼쪽 오른쪽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눈부신 태양을 볼 수 없었다.

세상에서 정말 맑은날 볼 수 있는 푸른빛 하늘보다 웬지 더 깨끗해 보이는 푸른하늘이 펼쳐져 있고, 구름으로 보이는 것들이 떠 있을뿐 기대했던 눈부신 태양은 없었다.

어느덧 호수가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난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 나에게 가까운 곳에 있던 한명에게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실례지만 다들 여기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난 궁금한 점을 물었다.

"이곳에 처음 오셨나 보군요. 이 호수는 증인들의 호수라고 불린답니다."

"증인들의 호수요?" 난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되물었다.

"이 호수를 통해서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전 그냥 깨끗하고 투명한 물로만 보이는데요?"

"한번 세상에서 지금 보기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꼭 원하는게 아니어도 그냥 지금 세상이  
어떤지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호수를 바라 봐 보세요."

천국에 온 이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이 생각이 났다.

순간 호수의 투명한 물안에서 나의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빠, 이렇게 먼지가면 난 어떻게..." 지은씨가 울면서  
혼잣말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을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것  
같았다.

아마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상황들이 보이는 것 같다.

나에게는 아내 지은씨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아이 한명  
그리고 아들녀석이 한명있다.



호수 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장례식장에서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장례식의 영정사진에는 내가 죽기전 별셋회사에서 일할 때, 다른 회사와의 회의를 위해 양복을 차려입었을 때, 아내가 멋지다며 찍어주었던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며, 난 괜찮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천국으로 왔는데... 생각이 들었다.

"아빠 보고싶어요." 딸아이와 아들녀석이 울면서 얘기했다.

"난 정말 괜찮아. 하지만 너희들도 꼭 천국으로 와야해."

아쉽지만 가족들의 소리는 작은 소리라도 나에게 들렸지만, 나의 소리는 세상으로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너무들 슬퍼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더 이상 바라보고 있기 힘들어 졌다.

그때 호수속의 장면이 긴코트를 입고 길거리를 걷고 있는 한 남성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은 지금 따뜻한 시기인데 추워보이는 주변으로 봐서는 북쪽 지역의 다른 나라인것 같았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일상생활 모습이 보여졌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어리둥절 하며 보고있을 때, 내 옆으로 하얀 날개가 다가왔다.  
전에 만났던 미카엘이었다.

"증인들의 호수를 보고계셨군요." 미카엘이 말했다.

"네. 이곳을 통해 저희 가족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두요."

"천국에 와서 다들 처음 많이 하게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삶을 이 호수를 통해 뒤돌아 보는 것 이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볼 수 있나요?"

"현재 뿐 아니라 과거의 일들도 볼 수 있지만, 보통 과거의 경우는 승화님과 관련된 일들만 보실 수 있을꺼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경우에는 꼭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사람의 삶의 현재 모습들이 보인답니다.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주로 승화님이 원하시는 일이나 또는 가끔 모르는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꺼예요." 미카엘이 말해주었다.

"천국의 수많은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미카엘이 덧붙였다.

나도 증인들의 호수를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기억

어느 무더운 여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산고의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엄마의 모습 옆에 푸른 옷을 입은 간호사가 하얀 가루들이 피부에 덮혀있는 아이의 몸을 닦아 주었다.

"응애 응애" 새롭게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간호사가 말했다.

"아들이네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축하해요."

출생신고서에는 혜성병원이라는 병원이름과 주소 및 날짜 그리고 승화라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옆에서 아버지로 보이는 한 사람이 군복을 입고 미소를 띄며 아이를 바라다 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젊었을 때 모습인가 보다' 난 생각을 했다.

어느덧 호수속의 나의 모습과 내가 동화되어 있었다.

난 군인이셨던 아버지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였다.

그리고 2 년뒤 사농이라는 여자 아이가 나의 여동생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나라에서 살 집을 마련해 주기는 했지만 근무지가 자주 변경되었고 우리는 잦은 이사를 다녀야했다.

초등학교 5 학년이 거의 마쳐갈 때 쯤, 우리는 서울에서 속초로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하게되었다.

"승화야 우리는 속초라는 곳으로 간단다. 그곳에는 바다도 있고 설악산이라는 유명한 산도 있단다." 속초에 대해서 아버지는 좋은 점들을 나열해 주셨다.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구나.

학교에서 별로 친한 친구들이 없던 나는 또 이사 간다는 사실이 별로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더 넓은 집으로 간다는 사실에 기대가 되었다.

속초에서는 서울에서처럼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사라는 주택에서 살게되었다.

하나의 건물을 반으로 나누어 왼쪽 집 그리고 오른쪽 집, 이렇게 두 가정이 사용하는 집이었다.

새롭게 이사간 곳의 지명은 학야리라고 했다.

속초의 도심에서 차를 타고 1 시간 가량은 걸려서 가야하는 외딴 곳이었다.

그리고 전학 가게된 학교는 영랑초등학교 분교였다.

영랑초등학교는 속초 중심부에 위치한 큰 학교였으나, 내가 있는 곳에서 초등학생이 다니기에는 먼 관계로 학야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으고, 영랑초등학교에서 파견된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해 주시는 학교였다.

"이번에 새롭게 전학온 승화라는 친구예요." 5학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오, 친구가 왔다." 텅 비어있는 교실에 두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 앉은 키가 좀 커보이는 아이가 말했다.

학아리 영랑초등학교 분교는 이제 나를 포함해서 5 학년이 모두 3 명이 되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오후에는 승우, 지훈이와 함께 놀았다.

우리가 주로 놀던 곳은 학교 뒤편에 위치한 우봉산이라는 곳이었다.

우봉산은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작은 동산이었다.

어린 우리들이 삼십분정도 뛰어올라가면 정상에 올라 갈 수 있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오래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정기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산 어딘가에 큰 말뚝을 박았다고 한다.

우리들은 이 말뚝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동한 산을 구석구석 뒤진적이 있었다.

하지만 말뚝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도 이미 뽑아 냈으리라.

즐거운 시절이었다.

공부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고 산에서 뛰놀며, 조그마한 플라스틱 총알이 나가는 비비탄 총을 가지고 총싸움을 하기도 하고, 고구려 기마민족의 후예들이라 그런지 큰 활을 만들어 가지고 노는것이 마냥 재밌었다.

우리 사이에서는 대활이라고 불렀던 활은, 산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땅에서부터 내 어깨높이 정도로 잘라내어 양쪽 끝을 줄이 매달릴 수 있도록 살짝 과내고, 주황색 빨래끈을 양끝에 매고 팽팽하게 하여 대나무가 휘어지도록 만든 활이었다.

대나무가 두꺼울수록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과 화살이 더 멀리 나아가는 듯 했지만, 구부리기가 어려워 만들기 어려웠다.

화살도 대나무를 잘라내서 앞부분에 못을 붙인 다음 우리는 활을 쏘며 놀았었다.

이렇게 만든 대활은 사정거리가 약 60 미터는 날아갔고 어지간한 나무에도 화살이 딱딱 잘 박혔다.

우리는 이 활을 들고 산에있는 동물을 잡는다고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실제로 잡는데 성공한 적은 없었다.



어린시절 가지고 놀기에는 좀 위험한 장난감이었다.

아찔했던 순간이 몇번 있었으나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

이곳 학야리에서의 삶에서 흥미로운 점은 교회와 절이 한 건물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는데 생도시절 옥사내 불교 동아리 회장이셨다.

방학 때마다 깊은 산 속 절들을 돌아다니시며 유명한 스님들의 설법을 들으셨다고 한다.

부모님의 만남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가정을 이루셨다.

어머니의 집안은 특별한 종교가 없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던것이 계기가 되어, 성경과 목사님의 말씀들을 즐거워하며 꾸준히 교회에 다니게 되셨다.

두분은 데이트를 시작하셨고 연애를 하는 동안 어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셨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셨을 때는 두분 모두 교회에 다니고 계실 때였다.

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신 집에 자주 놀러갔었다.  
특히 추석때가 좋았었는데, 제사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어머니를 통해서 집안 어른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모 및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래도 맛있는 음식은 준비되어 있어서 예배 후 함께 먹는 것은 변하지 않아서 좋았다.

예전 어머니에게 왜 제사를 지내지 않냐고 물었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할 때 실제로 그 대상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셨다.  
귀신들이 조상인 척 하면서 우리의 제사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의 죽음 후에는 그 영혼이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되는데,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영적인 존재들은 천사들 아니면 귀신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척 하는 영들은 어머니 말대로 거짓의 영들 귀신들일 것이다.



## 전진교회

난 부모님을 따라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갔다.

교회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올때 가끔 맞은편 절의 문도 열려있어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들곤 했다.

내가 나가던 교회의 이름은 전진교회였고 맞은편 절의 이름은 전진불교였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하시는 부대의 이름이 전진부대여서 그런것 같다.

교회와 절 모두 대부분의 출석자들은 군인 아저씨들 이었다.

어느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이 끝난뒤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주실 차례가 될 때였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나도 덩달아 일어섰고 무슨일인지 궁금했다.

어깨에 별 두개가 달린 분이 교회에 들어오자 예배중에 모두 일어서서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일 이후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더 이상 예배중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예배를 방해하면서 일어서는 일은 없도록 정했다고 한다.

나는 주일학교를 통해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성경책 속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우게 되었다.

한때 절에서 읽는 책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서 절에 있는 책을 본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있어서 읽는 것을 포기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는 다시 서울쪽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그와 함께 나의 속초 학야리에서의 삶은 마무리되었다.

나의 초등학교 6 학년 성적은 다른 두명의 경쟁자가 공부에 관심이 없는 덕에 항상 반에서 1 등이었다.

우리의 새로운 집은 이제 서울 반포대교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미군부대 옆 동빙고동 아파트였다.

아버지는 용산지역 부대에서 근무하시게 되었다.

가끔 퇴근 하시는 길에 미군부대 피자집에서 파는 안쏘니피자를 사오시곤 했는데, 그 동안 먹어 보았던 피자와는 크기가 정말 달랐다.

안쏘니피자는 보통 한국에서 파는 피자의 두배 정도 되는 크기였다.

미국인들을 보면 덩치가 큰 것 같던데 다 이유가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난 반포동에 위치한 원촌중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포대교를 버스를 타고 건너다녔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반포대교를 가기위해 지나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와 반포대교가 항상 많은 차들로 막혀있어 거의 한시간 정도가 걸렸다.





## 사랑의교회

우리 가족은 일요일이 되면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교회에 갔다.

사랑의교회에서 부모님은 담임목사님이신 옥한흠목사님이 설교 하시는 주일예배를 그리고 나와 사농이는 이찬수목사님이 설교 하시는 주일학교를 갔다.

속초에서는 일등을 달리던 나의 성적은 서울의 중학교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동안 나의 성적은 그렇게 잘하지도 그리고 그렇게 못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를 유지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버스를 타고 오는 어느날, 버스의 라디오 방송에서 긴급 뉴스라고 하며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사망했다는 말이 들렸다.

쿠테타가 아닌 심근경색이라는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

버스에 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설마 전쟁이 나는거 아냐?"

"드디어 통일이 되는건가?"

전쟁이 날지 통일이 될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학교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가 떠오르며 우리나라가 드디어 통일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

약 35 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지난 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법을 보면 우리의 국토는 북한과 남한을 합친 땅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은 불법단체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고 한다.

1950 년 6 월 25 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탱크들을 앞세워 남침 즉 남한을 공격해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 당시 탱크하나 없이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토를 북한에게 빼앗겼지만, 미군을 중심으로한 연합군의 도움으로 현재의 휴전선 지역까지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북한의 대표는 김일성주석이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유지해 나갔고, 남한 즉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의 대표들을 선출하였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3 년간의 한국전쟁은 남한의 거의 모든 기반시설을 파괴했고, UN 리포트에 따르면 1950 년대에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가장 못사는 나라였었다.

1950 년대에서 60 년대까지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3 배까지도 잘 살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 상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공산주의 이념은 북한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현재 북한과 한국의 경제규모는 남한이 44 배 더 높다고 한다.

한국은 2009 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우리나라를 축복받은 나라라고 한다.

북한의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으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입을것 먹을것 잘 곳들을 항상 최고로 누리고 또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한순간에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다 두고 떠나 버리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김일성주석이 자신이 이렇게 텃없이 이땅에서 사라져 버릴것을 알았으면 그토록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았을까.

큰 땅을 가진 한 부자가 있었다.

풍년이 들어 부자의 밭에서 풍성한 곡식이 생산 되었다.  
부자는 자신에게 곡식을 쌓아 둘곳이 없음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었다.

창고에 가득한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며 부자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생각났다.

죽음 이후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에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해도 완전한 천국에는 인간의 노력과 힘 만으로는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각이 났다.

선생님께서 도화지에 하나의 선을 그리셨다.

그리고 왼쪽에는 악, 오른쪽에는 선 이라고 적으셨다.

왼쪽 끝은 선한게 하나도 없는 백퍼센트 나쁜거고, 오른쪽 끝은 악한게 하나도 없는 백퍼센트 선한거예요.

가운데는 선했다 악했다 중간정도에요.

우리들에게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표시해보라고 선생님이 물으셨다.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선택한 아이들이 많았고 두명은 중간에서 조금 왼쪽으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적이 많다고 생각해서 중간에서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고 표시했다.

선생님께서 다들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보네요, 대부분 그래도 선한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있어야 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다.

천국에 가려면 그래도 중간에서 좀 많이 선한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서, 오른쪽 끝과 중간 사이에서 살짝 더 오른쪽으로 간 곳에 표시를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표시한 부분들도 비슷했다.

다들 자신이 현재 위치한 곳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표시를 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이곳에 위치해야 해요."

선생님께서 오른쪽 끝부분 백퍼센트 선하다고 하는 부분을 짚으셨다.

그리고 완전한 천국에는 죄가 전혀 없어야 갈 수 있다고 하셨다.

근데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셨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등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구원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뤄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셨다.



나도 나를 착하게 살고 있지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뤄주시기 위해 제물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 이유

시간이 흐르고 어느날 원촌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늘따라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정체현상으로 너무나 느리게 가는 버스 안에서 그냥 내려서 걸어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평상시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도착한 나는 뉴스를 통해서 삼풍백화점이라는 곳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삼풍백화점은 학교 가는 길에 학교에 도착하기 네 정류장 정도 전에 길 옆에 보이던 큰 백화점이었다.

무너진 건물 아래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관 아저씨들과 경찰 아저씨들 그리고 군인 아저씨들이 수고하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다.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오백명 정도의 사망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며 왼쪽으로 보이는 백화점의 무너진 모습을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버스 왼쪽 창밖으로 보이는 사고현장의 모습을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포함하여 평상시의 일상을 위해서 그곳을 지나쳐갔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있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다.

어떤 기자가 위험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던 한 단체에게 했던 질문이 있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십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백퍼센트 장담하실 수 있나요?"

그 단체의 대표가 이런말을 했었다.

"기자님은 내일 자신에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걸 백퍼센트 장담하실 수 있나요?"

사람이 죽게되는 원인 일위부터 십위까지를 뽑아보면 그 안에 자연사, 즉 나이들어서 또는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일위부터 십위까지 사람들의 사망원인은 모두 사고나 병이라고 한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집 근처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영어 과외를 받았다.

미군부대에 들어갈때 게이트에서 검사를 받게되는데,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미국인 아줌마께서 나를 손님이라고 하시며 데리고 들어가셨다.

우리나라 안에 있어서 한국의 보통 길거리 같이 생긴 또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같은 모양의 장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국적인 미국의 마을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는 거의 없었고 단독 주택들이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불리는 원형 도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군부대 안에 들어가면 웬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와있는 느낌이였다.

난 이곳에서 미국인 아주머니에게 정말 쉬운 영어부터 배웠다.

"Hello,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and you?"

하지만 난 영어에 소질이 없나보다.

그룹으로 다른 한국 아이들과 같이 배웠는데, 내 영어실력은 정말 제자리 걸음이었다.

제일 어려운것이 바로 영어단어를 암기하는 것이였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축농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나는 코로 전혀 숨을 쉬지 못했다.

그리고 코로 숨쉬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의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난 생각한다.

실제로 난 가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

잘 못 잤아 있다거나 몸 어딘가 동맥이 눌려있을 때 뇌로 가야할 산소가 부족해서 정신을 잃는 것이였다.

경험으로 어느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뇌로가는 산소가 부족해 지는지 알게 되었고, 가끔 정신을 잃는 경험이 신기해서 스스로 정신을 잃어 보기도 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를 듣고 하지 않게 되었다.

한번 산소 부족으로 죽은 뇌세포들은 뇌 기능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복구할 수 없다고 한다.

## 질문

시간은 흘러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강원도 원주라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나는 원주고등학교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다.

원주고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었다.

이 학교의 많은 졸업생들이 서울대나 서울지역의 대학에 간다고 한다.

입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했고 통과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다.

원주고등학교는 남자학교였기 때문에 내 여동생인 사농이는 원주여고를 다녔다.

난 입학 시험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전 및 오후 수업 후 저녁을 먹고 밤 열한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을 하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졌고 나의 성적은 바닥을 치게 되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원하는 학생만 하는 자율학습이라고 하는데, 모든 학생이 남아서 자율학습을 했고 안하게 되면 감독 선생님께 혼났다.

원주에서 살던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걸어다닐 만한 거리였다.

단지 아파트의 뒷길을 따라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했다.

나는 매일 밤 자정쯤 이 언덕을 지나갈 때의 감정이 좋았다.

언덕의 가장 윗부분을 넘을때 언덕 넘어로 작은 집들과 도로들의 불빛이 아련하게 펼쳐져 보였고, 어두운밤 하늘을 바라보면 수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다.

주변을 바라보면 나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 공부에 너무 지쳤고 하루하루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너무 싫었다.

몇년만 참으면 되겠지만 나에게서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힘든 하루하루였다.

학교로 가는 언덕을 넘을때 나는 틈틈이 정상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들을 하곤했다.



- 나는 누구인가!
- 나는 왜 태어났는가!
-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을 향해 이러한 생각들을 말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도 했었지만, 내 귀로 들리는 거부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들에 대하여 스스로 답해보려고 노력하곤 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배웠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

근데 왜 어느순간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시기 시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심심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제를 좋아 하신다고 한다.

우리를 로봇으로 또는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감사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아찔한 마음도 있다.

세상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에 대해서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모든 악에 대해서 개입하시며 막지는 않으시는것 같다.

만약 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형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자유의지를 생각할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 즉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신이 정말  
신일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를 쓸때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것 같다.

이단이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과 두려움 이 두 단어의 결합이다.

왕과 왕의 친구들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왕의 친구들은 왕을 자신과 동등한 다른 사람처럼  
존중하는 수준으로 존중할 수 없다.

왕이 아닌 친구들끼리의 존중과 왕과 친구 사이의 존중에는  
엄연히 두려움이라는 다른 감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왕의 왕 되심을 알게하는  
것이다.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의  
인간들은 이미 원죄로 인해 죽었다고 한다.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 삶이 영원하지  
못하고, 또 죽음 후에는 죄로인하여 심판 받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아담과 하와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선악과를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몇가지 생각해보면 선악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다.

에덴동산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던 낙원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택의 기회이다.

또한 에덴동산의 모든것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을 목상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할때 그분을 잘못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도움 없이 이해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않기로 했다.

원주고등학교를 다니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공부와는 담을 쌓게 되었다.

심지어 시험시간에 몇몇 친구들과 누가 빨리 시험을 풀고 나오는지 시험을 하곤 했다.

이때 시험을 푼다는 말은 정답을 적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답안지에 모두 2 번이 답이라고 적고,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지를 받고 답안지를 받은 후 약 30 개 되는 문제들의 답을 모두 2 번이라고 적고 나오는데는 5분 정도 걸린다.

이때 누가 더 빨리 나오는지를 두고 학교 매점에서 빵사기 내기를 하곤 했다.

처음에는 한 과목 그리고 두 과목 포기한 과목에서 시험문제를 모두 적었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여러 과목을 포기하게 되었다.

당연히 내 성적은 반에서 제일 뒷줄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부모님께서 우리 가족이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폴란드라는 나라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시던 부모님은 나와 동생을 모두 데리고 가는것으로 결정하셨다.

나는 학교에 자퇴서를 내게 되었고, 나의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은 고등학교 중퇴로 마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폴란드로 떠나기까지 한달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처음 학교를 가지 않는 몇일 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에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해야할 것을 안하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혼자있다는 우울감이 들었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지 생각도 많아졌다.



## 안디옥교회

원주에서는 안디옥교회라는 곳에 다녔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건물에 위치한 교회였다.

친구들이 모두 학교에 가 있는 낮에는 혼자 있기가 너무 심심해서 교회에 놀러가 있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언젠든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다.

부모님은 해외파견근무를 위해서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모두 교육을 받으러 가셨다.

여동생은 같이 놀 친구들이 있었는지 밖에 나가서 논다고 나갔고, 나도 함께 놀고 싶었지만 남자가 여자들 노는데 끼는 것이 부끄러워 같이 놀자는 말을 못했다.

난 거의 하루종일 심심한 집 보다는 교회에가서 교회 악기들을 건드리며 놀았다.



특히 그중에서 기타와 드럼을 교회 스피커와 연결된 찬양  
플레이어를 틀어놓고 따라해보곤 했다.

그리고 가만히 교회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성훈이 진건이 형무 등의  
친구들과 주로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며 놀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가스펠 음악만 듣게 되었다.

특히 가스펠 음악이 좋았던 이유는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이 폴란드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사일전 집의 모든 물건들을 큰 트럭으로 보내 버리고 우리는  
서울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머물렀다.

드디어 우리가족은 김포공항으로 갔다.

내 경우 아직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걸 허락 받기 위해서, 작은 외삼촌께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시겠다는 보증을 들어 주셔야 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 사람당 큰 가방 두 개씩 그리고 매는 가방 한개, 손으로 드는 가방 두 개씩, 여러개의 가방을 가지고 공항에 갔고 비행기표를 받는 곳에서 큰 가방들을 공항직원에게 건네 주었다.

가방들은 고무벨트를 타고 자동으로 멀리 움직여 갔는데 신기해보였다.

아마도 우리가 탈 비행기 짐 실는 곳으로 갔을 것이다.

혹시 가방이 다른 곳으로 가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나와 내 동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보는 비행기였다.

아버지에게 비행기표를 받아서 보니 비행기번호, 보딩시간, 게이트번호, 좌석번호 등이 적혀있었다.

우리가족의 좌석번호는 차례대로 쭉 이어져 있었다.

아마도 나란히 옆으로 앉아서 갈 수 있는가 보다.

보딩시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라고 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저 멀리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공항 검색대였다.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일찍 오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보딩시간 전에 비행기가 있는 장소인 게이트에 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색대를 통과하고 우리는 공항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백화점같이 깨끗하게 여러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면세점이라고 하며 세금이 붙지 않아 가격이 싸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다 비싸 보였다.

공항 검색대를 지나 내부를 구경하며 여러 비행기들의 게이트와 보딩시간이 적혀있는 스크린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자기 표에 적혀있는것을 보면 될텐데 왜 저렇게 자주 보이게 해놓은 걸까 물어보았더니, 비행기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서 표에 적힌 게이트 및 보딩시간 보다는 스크린에 나와있는 게이트 및 보딩시간에 맞춰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타야하는 비행기가 있는 게이트 번호로 갔다.

창 밖으로 커다란 비행기가 보였고 비행기 입구에는 터널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비행기에 타고 내릴때 계단을 사용해서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게이트에서 티켓 검사 후 계단 없이 걸을 수 있는 터널 통로를 통해 비행기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약 열세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던것 같다.

비행기가 뜰 때 롤러코스터를 타고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기분과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구름 바다를 보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비행기를 탔다.

어느덧 폴란드 바르샤바공항에 도착했고,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려 무거운 짐 가방들을 찾은 후 공항 밖으로 나갔다.

폴란드에서의 첫 바깥 공기는 웬지 침침한 느낌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다.

한국에서는 밤에도 밝은 느낌이 있었는데, 폴란드의 저녁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었다.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를 마중나온 폴란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짐이 다 들어가지 않아 택시로 보이는 차 한대에 나머지 짐들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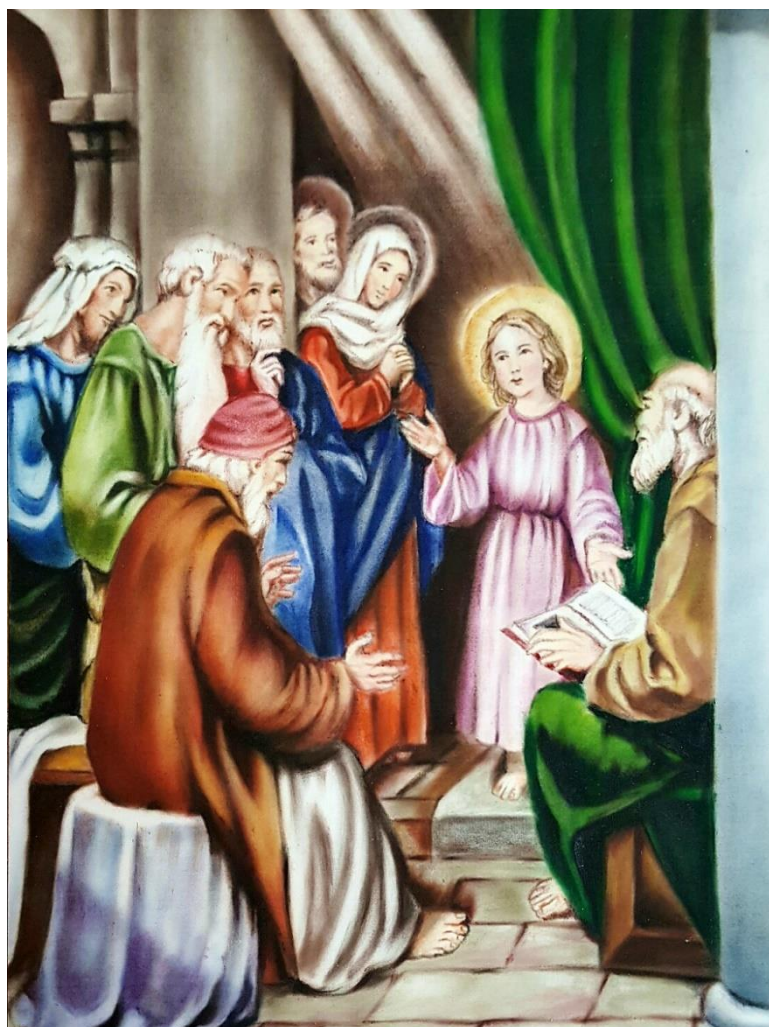
차를 타고 어두운 길거리를 지나 우리는 드디어 폴란드에서의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가 아닌 하나의 집을 다 사용하는 하우스였는데, 위로 3층정도 되는 높이 였고 지하로도 한층이 있었다.

반층정도 되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방이 있는 독특한 구조여서 어떻게 보면 5층짜리 집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우리가족은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 내 빌라노프 지역의 한 하우스에 정착했다.

폴란드에 처음 도착해서 직면한 문제는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였다.



## 바르샤바한인교회

주일에는 김현종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바르샤바한인교회를 갔다.

그 당시 바르샤바에 있는 유일한 한인교회였다.

처음 가서 인사 드렸을때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바르샤바에 있는 전체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이 교회에 등록해 있다고 한다.

이전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 이더라도 폴란드에서 한국이 그리워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폴란드 현지교회의 건물을 주일날 오후 시간에 빌려서 사용하였다.

오전에 폴란드어로 진행되는 현지 교회의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김현종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한국어 예배가  
시작되었다.

폴란드 적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은 목사님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다.

목사님께서 나와 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들로, 폴란드  
현지학교, 미국학교 그리고 영국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나와 내 동생은 스쿨버스를 타고 삼십분정도 떨어진  
영국학교에 다니기로 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3 학년이었던 나는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기로 하였다.

특히 고등학교를 다시 다닐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영어를 거의 못하기 때문이었다.

다행이 영국학교는 한국 고등학교처럼 학년차이에 따른  
엄격한 선후배 관계가 아닌 학년이 다르더라도 같은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학년에 따른 선후배 관계라는 것이 없었다.



영어는 나이에 따른 존칭이나 낮춤말 없이 서로 친구로써  
애기하기 좋은 언어였다.

이곳 영국학교의 이름은 St. Paul'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이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학교였고 그 중 전체  
고등학생의 수는 50 명 정도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은  
학교였다.

한국과 다르다고 느낀것은 학년에 따라 학생들이 들어야할  
수업 스케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 그리고 원하는 수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다.

문과보다는 이공계쪽에 좀 더 흥미가 있었던 나는, 영어 기초  
과정반과 일반 수학, 통계 수학 그리고 물리 및 화학 과목을  
들었다.

처음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거의 못 알아 들었다.

다행이 나 외에도 기영이와 주현이, 성훈, 정훈 그리고  
은정이 이렇게 5 명의 한국인 고등학생이 있었다.

이들 중 정훈이가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정훈이도 이공계쪽을 선택해서 나와 듣는 수업이 비슷했다.

숙제가 뭔지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훈이나 다른 친구들이 잘 도와줬다.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다.  
한국인 고등학생들이 고맙게도 나를 형으로 오빠로 존중 해주며 함께 잘 어울려 지냈다.

영국학교는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1 학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 학년씩 올라가서 12 학년을 마칠 정도가 되면 대학에 들어간다.

이 때 12 학년이 넘었다고 대학을 가는것이 아니라, 영국대학에서 요구하는 A-Level 시험을 통과해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A-Level 시험은 한국의 수능시험과 비슷하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다.

한국의 수능시험과 A-Level 시험은 다른 점들이 있다.

A-Level 시험은 과목마다 하나씩 있고 어떤 과목 시험을 볼 것인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과목도 큰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내 경우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학도 일반 수학, 통계 수학, 기계 수학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다른 A-Level 시험이 있다.

영국의 대학 과정을 보면 4 년짜리 과정도 있지만 3 년만에 끝나는 과정들도 있다.

이 이유 중의 하나는 영국의 고등학교들은 일찍 세부전공을 선택하고, A-Level 시험의 깊이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준까지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보통 3 개 정도의 A-Level 시험을 준비한다.

각 대학의 전공마다 원하는 A-Level 과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 정하고 그 대학에서 원하는 A-Level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때 나는 영국의 왕세자들이 주로 졸업하는 대학이 옥스퍼드나 캠브릿지 같은 높은 수준의 유명한 대학이라는 말을 들었을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해서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다.

전혀 그렇지 않은건 아니겠지만, 영국의 대학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면접을 통해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A-Level 점수를 받게된다.

우리가 들어본 유명한 대학의 경우 보통 면접을 통해, 2 과목 정도의 A-Level 점수는 A 를 나머지 하나는 B 정도를 받아오라고 한다.

하지만 왕세자나 그 대학에서 꼭 받고 싶은 학생이 있는 경우 3 과목 A-Level 점수를 모두 C 이상 받아오라는 다른 기준을 줄 수도 있다.

한국이었다면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영국의 대학 시스템은 한국과 다르다.

폴란드에 도착해서 느끼게된 감정은 외로움 이었다.

학교를 정하고 다니기 전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집에서 있었다.

처음에는 새로 살게된 큰 집을 구경하고 다니는 재미가 있었지만, 몇일 지나자 집에 대한 새로움은 시들해져 버렸다.

## 성경

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던 나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것 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천국에 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찾기 시작했다.

환경이 변해서일까 난 새로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원했고, 새벽 네시면 꼬박꼬박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두꺼운 분량에 우선 질리게 되고, 보고 있으면 괜히 지루해져서 주일학교 외에는 잘 읽지 않게 되던 성경이 이상하게 흥미로와 졌다.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성경의 내용들이 와 닿았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한달 정도가 흐르자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해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 이후에 혹시 지옥에 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여전히 있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

성경을 단지 소설책으로 읽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그냥 상상속의 내용들을 글로 적은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역사책으로써 읽게 되면,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실들 이라는 것에 놀라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정립하시고 보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보고 만질 수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책을 읽고 그안에 내용을 믿기 때문이다.

성경은 역사책이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은 정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실들인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경의 처음 부분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보면 십팔만 오천명의 앗시리아 군인들을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시켜 죽이기도 하신다.

[열왕기하 19 장 35 절]

이런 구절 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분 이시구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 수 있다.



성경을 보면 나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앓으시고 주무시지도 앓으신다고 하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

[시편 121 편 3-4 절][이사야 49 장 15 절]

나에게 와 닿은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이레" 다른말로 "여호와이레"라는 말이 있다.

이는 준비해주시는 하나님을 뜻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을 보면 보통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이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난 어려움이 싫다.

어려움을 겪는 성경속의 인물들을 볼때마다 난 기도했다.

주님 전 어려움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험 하도록 힘 쓰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지나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들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엮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놀라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2 장 12 절][시편 139 편 5-10 절][로마서 8 장 26 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게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길을 따르며,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일 것이다.

[신명기 10 장 12-13 절]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

결국 믿음이 필요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며,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다.

[이사야 55 장 8-9 절]

## 북한

폴란드에서 독특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내가 다니던 영국학교에는 북한 학생들도 있었다.

바로 옥경이와 통일이 였다.

옥경이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고 통일이는 아직 어린 아이였다.

처음에 같은 한국인 인줄 알고 안녕이라고 하며 말을 건넸을 때, 텔레비전에서만 봐오던 북한 사투리로 응답을 해서 신기했다.

나와 옥경이는 듣는 수업들이 달랐지만, 학교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폴란드어 수업을 같이 들었다.

옥경이와 통일이는 아침에 감시원으로 보이는 북한기사가 차를 태우고 와서 학교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사가 다시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학생들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북한 아이들이 집으로 초대하면 절대 가지 말아 달라고 대사관에서 공지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폴란드에 간 시기는 아직 폴란드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였다.

한국 대사관보다 훨씬 큰 북한 대사관이 있었고, 북한 대사관 내에는 북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도 있었다.

옥경이와 통일이도 그 곳 북한 대사관 내에서 살고 있었다.

폴란드어 수업을 하는 교실은 두명이 하나씩 쓰는 책상들이 줄지어 있는데, 옥경이와 나는 같이 한 책상에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곤 했다.

옥경이의 아버지는 북한 대사관에서 외화 벌이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한번은 옥경이와 얘기하며 예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그리고 민감할 수 있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소련 및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옥경이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일제강점기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난 우리나라를 도와준 미국이 고마운 나라라고 했으나, 옥경이의 경우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쁜 미국 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 나쁜 놈들 이라고 했다.

옥경이의 경우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옥경이는 나에게 이러한 역사들, 특히 오래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물었다.

나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모두들 배우는 내용이라고 말했고,  
옥경이가 관심이 있어하자 다음날 북한 감시원 몰래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빌려 줬었다.

필요하면 가지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기는 힘들다고  
했다.

중학교 교과서는 몇일 뒤에 돌려 받았는데 꽤 열심히 읽은  
흔적이 있었다.

우리 또래 북한 아이들은 우리랑 별로 다르게 없었다.

근데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을 수 있는 북한 아이들이면,  
북한에서 가장 상류층에 속 할 거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 폴란드

코페르니쿠스, 쇼팽, 퀴리부인 등,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한인교회에서 나이는 대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내 경우, 대학 이상의 학교에 속한 청년들이 나가는 청년부에 가야할지, 아니면 주일학교에 속해있는 고등부에 가야할지, 난감하였다.

하지만 한국문화에서는 나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나는 나이에 따라서 청년부에 나가게 되었다.

청년부의 전체적인 나이는 이십대 후반으로 좀 높은 편이었다. 폴란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교환학생으로 폴란드에서 대학원 과정 또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교회를 나오는 청년들의 가장 많은 수가 쇼팽음대에 다니고 있었다.

한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뒤 다시 자신의 세부전공으로 쇼팽음대에서 배우거나, 한국의 대학과 맺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보통 일년 또는 이년동안 폴란드에 와있는 경우다.

그 다음으로 많은 청년들이 한국의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었다.

외대를 졸업한 폴란드어과 학생들이 폴란드의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청년부에서는 항상 콘서트 정보가 많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경력을 적을때 콘서트를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하다고 한다.

한달에 두 번 정도는 교회 형이나 누나들 중 누군가의 콘서트가 열렸고 난 그곳에 반 강제로 참석해야 했다.

한국보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입은 작지만, 폴란드 사람들은 확실히 문화를 즐기며 사는 것 같다.



내가 살던 곳 근처의 빌라노프 궁전이나, 도시 한가운데 있는  
와이첸키 공원, 또는 곳곳에 있는 예쁜 교회 건물이나,  
학교에서 천원이나 이천원 정도되는 금액, 또는 공짜로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가 틈틈이 열렸다.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은 젊은이들 노인들 나이에 관계없이  
이러한 콘서트를 자주 즐기러 간다.

내 경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편안한 수면에 빠져들게  
되는데, 교회 형이나 누나들이 자신의 콘서트에 오라고 해서  
갔다가 잠에 빠져들고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조는 모습  
때문에 신경 쓰였다고 혼난 적들이 있다.

난 그래도 아는 사람의 콘서트니까 일찍가서 앞에 자리잡고  
앉은건데, 클래식 음악을 들을때 쏟아지는 잠은 어쩔 수  
없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폴란드는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처리되기를 배려하는 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체국이나 관공서에 서류를 받거나 처리하기 위해 가면 하루는 그곳에 다 투자해야 한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처리를 받기는 하지만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정말 느릿 느릿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산주의 때 배급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오래된 마을 이라는 뜻의 스타레미아스토 라는 예쁜 지역이 바르샤바 수도에 있다.

이곳에 가면 길거리 공연, 음악 그리고 음식점이나 작은 상점들을 볼 수 있다.

한인교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일예배를 마치고 이곳을 들리곤 했다.

항상 보게되는 커다란 비눗방울들을 만드는 공연, 동상인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면 움직여서 나를 놀래키던 Living-Statue 공연, 기타나 클래식 악기로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연 등, 여러 공연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틈틈이 교회나 성당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가스펠 공연을 하곤 했는데, 대부분 영어 가사 또는 폴란드어 가사라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끔씩 내가 알고 있는 리듬의 찬양곡이 있을 때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폴란드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나는 다시 대학입학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 영국

영국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영국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공부 보다도 우선 영어가 되어야 하는데, 내 영어실력은 정말 천천히 조금씩 늘어서 아직 많이 부족했다.

내 경우 주로 한국인 형이나 누나 동생들과 함께 놀았고, 여동생은 주로 외국인 친구들과 놀았다. 여동생의 영어 실력은 정말 많이 늘었다.

사농이는 영어뿐 아니라 폴란드어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다. 난 언어에 대한 재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경우 언어에 대한 재능은 없는 것 같다.

부모님은 나에게 영국에 잠시 가보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아직 부족한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영국의 어느 대학으로 갈지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난 영국의 대학 정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잘 들어보진 못했어도 그래도 영국 내에서 괜찮다는 대학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중 요크 대학이 있는 요크(York)라는 영국의 도시로 가기로 했다.

영국 지도를 보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영국에서 실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남부 지역이라, 중간에 위치함에도 영국의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한다.

이 지역을 고른 이유 중의 하나는 이곳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하우스 호스텔과 영어학원이 있어서 였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3 개월동안의 영어 학원비와 하우스 호스텔에 비용을 지불해 주셨다.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보게 되었다.

혹시 비행기를 잘 못 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쉬웠다.

여권과 예약 증명서를 가지고 비행기 시간 3 시간 전 정도에 공항에 미리 들어가서, 예약한 항공사의 체크인 하는 곳에서 표를 받고 큰 짐들을 보낸뒤, 검색대를 지난 후 표에 적인 게이트 번호로 가서 기다렸더니, 문제 없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영국 맨체스터 공항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짐을 찾은 후 공항과 붙어있는 기차역으로 가서 요크로 가는 기차표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예매한 증명서를 가지고 기차표를 파는 창구에 가서 시간에 맞추어 기차표를 받을 수 있었다.

영국은 처음이라 헤멜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기차역까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표지판들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헤메지 않고 무사히 요크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영국의 기차는 우리나라의 기차보다 조금 더 둥그스름하게 생겼다.

한국의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타보면 네모난 느낌이 있는데, 영국의 기차는 위쪽이 좀 더 둥그스름하게 생겼다.

실내는 깨끗한 느낌이었고 한국의 기차와 별로 다른것이 느껴지진 않았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면 한국이나 폴란드와는 다른 풍경을 느낄 수 있었다.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보통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볼때 보이는 전신주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약 50 미터 간격으로 전신주가 있고, 기차의 윗부분으로 전기를 공급받지만 영국의 기차는 레일, 즉 기차길 자체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한다.

영국의 기차길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철도가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씩 떨어져 있지 않고 쪽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레일을 떨어뜨려 놓지 않아도 휘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전기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높이 위로 흐르는 것보다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영국의 철도 주변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는다.

요크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았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부의 사진과 닮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렵지 않게 난 하얀머리를 가지신 마리아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머리가 하얗다고 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건 아니었다.

약간 통통한 몸매를 가지신 할머니신데 윤기가 있는 하얀색 머리카락을 가지셨다.

마리아 할머니와 남편되시는 분이 함께 기차역에서 나오는 문앞에서 서 계셨다.

"Hello" 라고 말하며 내가 다가갈때, 그분들도 나를 쉽게 알아보시고 나에게 오고 계셨다.

마리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영어로 빠르게 말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내 이름을 확인하고 잘 찾아왔구나 이제 함께 차를 타고 우리집으로 가자, 라는 내용인것 같았다.



폴란드 영국학교에서 듣던 영어보다는 조금 빠른듯한 다른 느낌의 영어여서 처음에 간단한 단어들이нде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다.

외국의 영국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배려해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 해주던 것이라고 한다.

요크 기차역에서 난 마리아 할머니네 차를 타고 20 분정도를 지나, 드디어 영국에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숙소에 도착하였다.

요크의 집들은 한국처럼 높은 아파트들은 보이지 않았다. 2층 또는 3층정도 되는 작은 하우스들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마리아 할머니 집도 다른 하우스들 사이에 끼어있는 3층짜리 집이었다.

마리아 할머니는 내가 쓸 방으로 3층에 있는 가장 윗 쪽의 방을 주셨다.

3층짜리 하우스라고 해서 집이 많이 큰건 아니다. 한국의 30 평 후반대의 아파트 정도의 집 크기라고 보면 된다.

다른 점은 영국의 하우스는 한층에 하나 또는 두개의 방이 있고 한국은 한층에 모든 방들이 모여있다는 것이다.

마리아 할머니 집구조는 하우스 입구로 들어가면 우선 마루가 나온다.

보통 입구가 있는 1 층에는 방이 없다.

1 층에서 식사를 하고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거실이 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는 부분에 작은 부엌이 있다.

2 층에는 작은 방이 두개 있었고 3 층은 하나의 큰방이 있는데, 이방을 내가 쓰고 있다.

이제 앞으로 3 개월간 살게된 내 방에 짐을 가져다 놓았다.

방 가운데 침대가 있고 그 앞쪽 벽에 작은 브라운관 TV 가 있었다.

그리고 옷장과 장식대가 하나 있었다.

난 내 집에 있는 옷들을 옷장에 하나씩 옮겨 놓았다.

그리고 TV 를 틀어 보았는데 한 10 개정도의 채널이 잡혔다.

물론 모두 영어로 나오는 채널들 이었다.

잠시후 할머니가 내 방문을 노크하셨다.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라고 말하셨다.

마리아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세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스테이크와 약간의 야채 그리고 포테이토가 있었다.

특히 스테이크에 뿌리는 그레이비라는 소스가 있었는데, 스테이크 뿐 아니라 어디에 찍어 먹던지 맛있게 해주는 소스였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할아버지는 요크 우체국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아들이 한명 있다고 하셨다.

2층에 있는 두개의 방 중 하나가 아들방 이었다.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주로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온다고 한다.

마리아 할머니는 자주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잠드신다고 한다.

영국 문화인건지 아들이 늦게 들어오건 일찍 들어오건 별로 상관하지 않는것 같았다.

폴란드에서는 나와 내 여동생은 무조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일찍 집에 들어가야 했다.

이곳에서 대중 교통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할머니께서 함께 버스를 타고 영어학원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로 했다.

"Thank you and Good night" 저녁을 마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린 후, 난 다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생각의 고리를  
연결하다가 잠들었다.

## 영어

아침이 되었다.

마리아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다.

할머니의 아들은 일찍 나갔다고 한다.

아침은 우유와 시리얼 그리고 바나나등의 과일과 함께 먹었다.

세개 정도의 투명통에 다른 종류의 시리얼들이 들어있었고,  
원하는 시리얼을 골라 우유와 섞어 먹었다.

할머니를 따라 바나나를 썰어서 시리얼에 섞어 먹었는데,  
바나나가 우유와 만나자 부드럽고 촉촉해 지면서 생각보다  
맛있어졌다.

영국 요크에서의 식사는 주로 아침에는 마리아 할머니 집에서  
시리얼과 우유를, 점심에는 영어학원 식당에서 또는 학원  
친구들과 나가서 먹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고기와  
그레이비 소스 그리고 야채와 포테이토를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바로 일하러 나가셨고, 잠시 후 나와 할머니는 집앞 도로를 따라 조금 걸어가면 나오는 버스 정류장에 갔다.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서 한국처럼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안에 의자등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도로에 가까운 인도쪽에 쇠로만든 봉이 땅에 박혀있고 위쪽으로는 동그란 모양의 판에 버스모양의 그림이 그려져있다.

정류장 표시 봉의 중간에는 사각형의 정보판에 버스번호들과 시간표가 종이에 적혀있다.

한국같으면 10 분에 한대 또는 20 분에 한대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오는걸 알텐데, 이곳 버스 시간표를 보니 몇시인지에 따라 다른 시간 간격으로 정확한 시간이 적혀 있었다.

마리아 할머니 말로는 버스들이 시간표를 잘 지킨다고 한다.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버스가 정류장에 서서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가기도 한다.

가끔씩 지나가는 2 층 버스를 보면서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영어학원으로 가는 버스는 일반적인 1층 버스였다.

폴란드에서도 2층 버스는 보기 힘들다.

보통 일반적인 1층 버스를 타고 다녔다.

영국에 간다고 해서 2층 버스를 타보는 기대를 했는데,  
영어학원에 가는 버스는 1층 버스여서 약간 실망했다.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지났을까, 마리아 할머니가 이제  
내리면 된다고 하셨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후 건너편을 바라보니, 작은 대학  
느낌의 건물들이 보였다.

2개의 학원 건물 뒤쪽으로 작은 공원이 있었다.

나와 할머니는 영어 학원에 가서 입학 수속을 하였다.

인터넷으로 미리 비용을 지불했었고 프린트해온 등록증을  
가져오자 입학 수속은 쉽게 마칠 수 있었다.

할머니는 학원이 끝나면 오늘 타고 간 버스를 타고, 다시  
오면 된다고 하시고 먼저 가셨다.

학원이 끝났을 때 다시 데리러 와 주실줄 알았는데, 그래도 할머니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할머니께 나중에 집에서 뵙겠다고 인사드렸다.

영어학원에서 레벨에 맞는 반에 들어가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받았다.

난 기초반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영국학교에 다닌 보람이 있는지 중급반 내 고급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받고 수업이 있는 교실로 들어갔다.

10 명의 학생이 앞에 있는 선생님을 마주보고, 반달모양으로 책상이 나열되어 있었다.

난 선생님을 정면에서 한칸 옆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내가 참석하는 영어 수업반에는 한국인이 없었다.

모두들 다양한 머리 색깔의 서양인들 이었다.



점차 알게되었는데 절반은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두명은 그리스에서, 한명은 스위스에서, 나머지 한명은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 이었다.

학원에는 총 200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대부분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몇 명 없었다.

영어학원 수업은 오후 3 시에 끝났다.

수업을 마치고 학원 앞의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렸다.

수업은 마쳤지만 다들 학원에서 할일이 남아 있는지, 학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다.

30 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신호등이 바뀌지를 않았다.

신호등이 고장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냥 빨간불 이지만 뛰어서 건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교통질서를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며 신호등이 바뀌기를 계속 기다렸다.

학원에서 몇명의 학생들이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신호등 기둥에 달려있는 빨간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보행자가 신호등의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신호등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신호등의 버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용이고,  
기다리면 알아서 변경되었는데 요크는 그렇지 않았다.

이일 이후로는 도로에서 신호가 변경되길 기다릴 때는 항상  
신호등의 버튼을 꼭 눌러준다.

마리아 할머니 택에 잘 도착하였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학원은 어땠는지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보시고 대답하며 얘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택에는 약간의 흰색 줄무늬가 있는 까만색 작은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 이름은 리본이었다.

어린 새끼때부터 키운 고양이라고 하셨다.

주로 밤에는 밖으로 나가서 지내다가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

영국에서는 고양이가 집 안 밖으로 알아서 잘 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고 지낸다고 한다.

영국 요크에서의 삼개월 간의 시간은 내 영어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가 알게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어를 쓰지 않는 것이다.

한국인 이라고는 나 홀로 있는 영어학원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무조건 영어로만 생활을 한 것이 내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폴란드 에서도 영국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하긴 했지만 학교에서 한국인 동생들과 한국어를 사용하고, 집에서는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 하면서 영어실력은 별로 늘지 않았다.

여기서는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만 생활을 했더니, 이전 영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머리속에서 항상 거치던, 한국어를 영어로 만들던 과정이 간단한 생각들은

머리속에서 번역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영어로 생각하고 얘기하게 되었다.

이곳에 온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였던 영국의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곳 요크 대학을 포함하여 몇몇 영국 대학들의 정보를 알아보았다.

대학 입학 을 위해서 3 개 정도의 A-Level 과목 성적들을 요구했고 일년 학비는 8 천 파운드 정도였다.

A-Level 의 경우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영국 대학의 학비 그리고 생활비가 문제였다.

그래서 가족에게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다른 대학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폴란드의 영국학교에 다니면서 폴란드에 있는 대학에는 들어갈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막상 영국에 와서 대학들을 알아보다가 폴란드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결국 영국에서 지내는 기간동안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공대에 입학을 시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 자유의지

잠시 영국에서 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던 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미래를 위하여 현재와 과거를 제대로 아는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것!

성경을 보면 인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천지창조의 셋째날 땅과 바다로 나뉘고 이 땅위에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여섯째날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고  
[창세기 1 장 26 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한다.  
[창세기 2 장 7 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라는 복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우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새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

[창세기 2 장 19 절]

인간과 다른 창조물과의 차이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전하였을 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로봇의 정점은 동물 수준일 것이다.

이 때의 동물은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영혼이 없는 동물의 모습이 어찌면 인간에게 가능한 최고의  
창조물의 모습일 것이다.

인간은 절대로 영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 영혼은 흠으로 만들어진 육신과 함께 있다가, 육신이 흠으로 돌아가면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히브리서 9 장 27 절]

사람은 죄와 무관한 존재였다.

죄의 본래의 뜻은 화살이 과녁에서 벗어나 날아가는 것을 뜻한다.

본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태초의 인간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죄없이 살았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깨닫게하는 명령을 내리셨다.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 장 17 절]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의 각종 나무와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다가, 선악과를 볼때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목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무조건 따르게 되는 로봇가 아닌, 나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

하지만 인간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창세기 3 장 6 절]

교만과 탐심 즉 눈의 욕망, 육신의 욕망, 세상의 자랑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다.

주님은 우상숭배를 정말로 싫어하신다.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라고 하신것이다.

[출애굽기 20 장 3 절]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한다.

[골로새서 3 장 5 절]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다.

그리고 경험해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악한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선택했다.

죄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2 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결과가 안좋은 일이 생기곤 하는 것일까?

주님은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전능하심과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 부터 떨어져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로마서 3 장 23 절]

불순종 이후 주님과 멀어짐은 우리의 영혼이 심판의 때에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 구원

인간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 장 27 절]

회칠을 하게 되면 냄새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썩어가는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같이 더럽지만,  
겉으로는 회칠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리고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한다.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마태복음 5 장 46 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는 미워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나 나에게 가까운 자만  
챙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과 속이 다른 인간들, 그리고 내가 가진것들을 의지하는  
인간들, 인간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인간의 죄는 결국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까지 나아갔다.

[로마서 3 장 18 절]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 장 8 절]

하지만 인간은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 버려서는 안된다.

[욥기 37 장 24 절][잠언 28 장 14 절][시편 34 편 9 절]

[사도행전 10 장 35 절]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러한 경외감은 두려움을 포함한다.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하게된 하와는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3 장 6 절]

인간의 연약한 점 중의 하나는 죄를 짓게 되었을때, 다른  
인간도 죄를 짓게 함으로써 너도 나도 행하게 만들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변명을 하게 만든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적 생각이 변할 때 이전에는 죄로 여겨지던 것들, 특히 음란, 재물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희석되어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다.

아담의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창세기 2 장 16 절]

그리고 하나님께 하와가 주기에 먹었다는 변명을 한다.  
[창세기 3 장 12 절]

죄의 확산성, 용납 그리고 강박해지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피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  
[히브리서 12 장 4 절]

죄는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즉 이전에도 이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을 뜻한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로마서 6:23]

죄에 대한 댓가, 이에 대하여 성경에는 군인이 받는 봉급의 뜻을 가진 댓가라는 단어가 쓰였다.

우리는 죄의 댓가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대표성을 가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댓가로 죽음도 이 세상에 있게 되었다.

[로마서 5 장 12 절]

이제 인간은 모두 주님으로 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범죄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잠언 6 장 16-19 절]

인간의 마음 속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사야 40 장 6-8 절][베드로전서 1 장 24 절]

내일 일을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야고보서 4 장 14 절]

인간은 태어 날 때 부터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발짓하며  
살아있으려는 존재다.

[에스겔 16 장 6 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욥기 25 장 6 절]

인간은 버려지 같은 존재, 즉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다.

[이사야 41 장 14 절]

인간이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는 한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될 이 육신  
이 후에, 내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웠다.

우리는 죄인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나는 구원받고 싶었다.

즉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

[요한복음 3 장 16 절]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찾아보았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 장 16 절]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자라는 뜻이다.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한복음 1 장 29 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요한복음 1 장 34 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 장 16 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항상  
살아 계셔서 간구하시는 분

[히브리서 7 장 25 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분

[히브리서 7 장 26 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 장]

왜 예수님 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대신 죽어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통해 제물의 피로 죄값을 치루었다.

가인과 아벨의 예를 보면 단순히 제사를 드렸다는 형식만으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주신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사일 때 주님께서 받으신다.

[창세기 4 장 4 절][요한복음 4 장 24 절]

옛 언약은 율법에 따라 피로써 정결케 되었고,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었다.

[히브리서 9 장 22 절]

이전 제사장들은 매일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으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였다.

[히브리서 10 장 11 절]

첫 언약이 무흠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히브리서 8 장 7 절]

새 언약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첫째것)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것) 예수님을 통한 제사를 세우셨다.

[히브리서 10 장 9 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 장 12 절]

예수님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다.

흠 없는 어린양으로 불리는 완벽한 제물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10 장 10 절]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히브리서 7 장 27 절]

그리고 유월절의 예를 보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은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구분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출애굽기 12 장 21-23 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제물되시는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5 장 1 절]

그리고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제물되어 주시는 큰 은혜로 가능했다.

[에베소서 2 장 8 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 바르샤바공대

난 영국에서의 짧은 생활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왔다.

가족을 폴란드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간단한 대화들은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먼저 내 입에서 튀어 나왔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내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놀랐다.

나는 폴란드 바르샤바공대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감사하게도 바르샤바공대 입학은 어렵지 않았다.

폴란드는 폴란드어를 사용하기에 아직 폴란드어를 잘 모르는  
내가 입학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내가 입학하려는 시기에 대학에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학부과정을 새로 개설하였고, 대학 측에서도 이  
과정에 폴란드어를 모르고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었다.

바르샤바공대는 폴란드 최고의 공대다.

많은 폴란드 학생들이 이 대학에 입학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폴란드인들은 입학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내 경우 외국인으로서 특례 입학이 되었다.

폴란드인이 아니고 영국학교를 다닌 영어가 되는 학생이라고,

특별한 시험 없이 영국학교 졸업장 만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난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르샤바공대의 학비는 일년에 원화로 사백만원 정도였고,

무엇보다 가족이 이미 바르샤바에서 함께 살고 있기에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동유럽에 위치한 폴란드는 아직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나라는 아닌가 보다.

내 학부과정인 전산수학과는 총 50 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나를 포함해서 세명이 있었다.

한명은 나이지리아에서 왔고 또 다른 한명은 리비아에서 왔다.

수업들을 들어보면 영어로만 진행하는 학부과정은 이 학교에서도 처음이라서 그런지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게 느껴졌다.

그래도 전공 내용들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 중 알아듣는 부분과 관련 책들을 읽어가며 수업을 따라갔다.

어떤 교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으셨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남한인지 북한인지 물으셨다.

내가 남한이라고 하자 남한 학생은 처음이라며, 예전 북한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다고 하셨다.

바르샤바공대에 남한 사람은 내가 최초의 학생이었다.

이곳에서 느낀것은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왔다고 해서 졸업하는게 아니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한 후 제대로 졸업하는 학생은 약 절반정도 된다.

나머지 절반은 제때에 졸업하지 못한다.

대학에서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리비아에서 온 친구였다.

몇 명 없는 외국인이기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솔로몬이라는 친구는 수업 후 함께 식사하고 공부하며 친해지게 되었다.

우리가 놀 때는 주로 당구장에서 식사 값 내기를 하며 놀았다.

한국의 당구장은 테이블에 구멍이 없는 사구 위주이지만, 폴란드의 당구장은 사구 테이블은 없고 대부분이 포켓볼 테이블이고 한 개 정도의 영국식 당구인 스누커 테이블이 있다.

우리는 주로 포켓볼을 치며 놀았다.  
대략적인 포켓볼 게임방식은 이렇다.

포켓볼은 일번부터 십오번까지 번호가 적힌 공들이 있는데 까만색인 구번 빼고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15 개의 공들을 삼각형으로 모아놓고 하얀공을 서로 번갈아 치면서 공들을 테이블 포켓에 넣는 것이다.

만약 포켓에 공을 넣게 되면 하얀공을 한번 더 칠 수 있다.

공들은 숫자 외에도 줄무늬 공과 민무늬 공으로 나뉜다.

처음 자신이 포켓에 넣은 공이 민무늬이면 자신이 앞으로 넣어야 할 공들이 민무늬 공들이다.

그리고 자기가 넣어야할 무늬의 공들을 다 넣고 마지막으로 까만색 9 번 공을 먼저 넣으면 이기는 것이다.

만약 중간에 9 번공을 실수로 포켓에 넣게 되면 바로 게임에서 진다.

그리고 자기 무늬의 공이 정해지면 하얀공을 칠때 처음 부딪치는 공은 자기 무늬의 공이어야 한다.

다른 무늬의 공을 하얀공이 먼저 건드리게 되면 다음 차례의 사람이 자유롭게 놓고 싶은 곳에 하얀공을 놓고 칠 수 있다.

포켓볼 룰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룰은 이랬다.

솔로몬과 나는 당구를 치며 또 수업을 들으러 돌아다니며 함께 공부를 해나갔다.

바르샤바공대는 메인 캠퍼스 외에도 바르샤바 도시 곳곳에 학교 건물들이 있어서, 컴퓨터 관련 수업을 듣다가 물리 관련 수업을 들을 때는 트램을 타고 이동해야 했다.

자주 이용하는 교통 수단중에 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땅 밑으로 지나다니는 지하철과는 다르게 도로위에 기차레일을 깔고 자동차와 트램이 신호를 받아가며 도로를 함께 사용한다.

트램은 상당히 킬킬 거리며 달린다.

체감속도는 빠르지만 운전석 속도계의 속도를 보면 별로 빠르지 않다.

폴란드의 대중교통은 버스나 트램을 탈 때마다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

일회용 표 또는 하루나 한달권 표를 산 뒤 그 표를 가지고 검사 없이 그냥 타면 된다.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가끔씩 버스나 트램에 타서 탄 사람들의 표를 갑자기 검사하곤 한다.

이때 표를 검사하는 사람은 표 검사관임을 증명하는 태그를 달고 다니는데, 이 검사관들이 탈때 표 없이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후다닥 내리곤 한다.

너무 튀나게 급하게 내리는 사람들은 검사관에게 밖에서 잡혀서 벌금을 내기도 한다.

솔로몬은 모슬렘이라고 했다.

모슬렘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는 가끔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얘기하고, 솔로몬은 코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얘기했다.

솔로몬을 통해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마호메트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천사를 통해 코란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성경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다.

코란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코란의 흥미로운 부분은 천사들을 창조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천사는 빛으로 만들어지고 루시퍼는 불로써 만들어 졌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천사들에게 인간을 섬기라고 하자, 불로 만들어진 루시퍼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 반항하였다고 한다.

루시퍼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세상에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코란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다섯명의 큰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들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라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인간일 뿐이며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래도 이 다섯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뿐이라고 한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큰 차이중 하나는, 이슬람은 자신의 의로  
인해서 선한일이나 특정한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선과 악을  
저울질 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나의 선함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이 우리의 죄 값은 치뤄지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을텐데, 이슬람교를 믿으며 날마다 선행으로 구원받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한동안 폴란드에서의 내 삶은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바르샤바공대와 관련된 시간들, 즉 수업하고 공부하고  
학교친구와 노는시간과, 바르샤바한인교회와 관련된 시간들,

즉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행사에 참여하는 시간들로 이루어졌다.

교회 성가대의 멤버로써 함께 찬양하였고, 아침찬양팀이라는 예배시간 찬양을 인도하는 팀의 리더로 찬양팀원들과 주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연습을 하였다.

우리교회 성가대는 쇼팽음대를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서 성가대 찬양소리가 좋기로 유명하였다.

폴란드 한 방송사에서 우리교회 성가대의 찬양을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고 찾아와서 녹화하기도 했다.

성가대 찬양연습은 주중에 했었는데, 주재원으로 오신 성가대원 분들의 집에 돌아가면서 방문하며 찬양연습을 하였다.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은 주로 회사에서 집이나 아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아침찬양팀은 성가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로 영국학교를 포함한 국제학교의 청소년 한국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침찬양팀의 찬양연습은 한국식당을 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매주 주중에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그곳에 모여 예배와 찬양연습을 하였다.

폴란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대우 자동차들 이었다.  
대우라는 한국의 기업이 폴란드에서 큰 성공을 하였다.

운전면허증 시험을 볼때 나라에서 지정한 차도 대우차일  
정도로 폴란드에서 대우차가 많이 팔리고 인기가 좋았다.

그랬던 대우가 어느 순간 회사가 어려워지고, 대우 자동차가  
다른 회사로 팔리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 이유중의 하나로 주변 다른 국가들에 폴란드처럼 성공을  
기대하며 많은 투자를 했는데, 폴란드 외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모두 실패하였다고 한다.

대학 마지막 년차 때는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대우정보라는 회사에 현지채용으로 취직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폴란드 대우정보는 약 백명 규모의 기업이었다.

그 중 한국인은 총 책임자이신 김부장님, 그리고 부장님과 함께 한국에서 파견나오신 박과장님, 그리고 현지채용으로 일하고 계셨던 김대리님, 그리고 나 이렇게 4명 이었다.

전산수학과를 다니는 학생였던 나는 대우정보에서 파트타임으로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하였다.

2-3 주에 한번 정도는 4 명의 한국인 직원들만 모여 함께 회식을 하곤 하였다.

가족이 있으셨던 김대리님은 회식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제일 막내였던 나에게만 속마음을 얘기하시고, 모든 회식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셨다.

아직 싱글이었던 나에게 회식 자리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즐거웠다.

주말에는 한글학교에서 수학선생님을 하였다.

한글학교 장소는 폴란드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한국 아이들이 모여서 한국 교과서를 가지고 한국어로 수업을 하였다.

원래 한국 아이들이 많은 다른 유럽의 경우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파견 나온다고도 하는데, 폴란드의 경우 한국 아이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을 모집하였고 쇼팽음대에 다니는 분들이 음악을, 한국외대에 다니시는 분들이 국어를, 그리고 이공계 대학생이었던 내가 수학을 맡게 되었다.

한주에 한번 한국 아이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는 교통비 지원의 명목으로 월급을 주었는데, 이 월급이 폴란드 정식학교 선생님들의 월급과 비슷하였다.

민주화가된지 얼마되지 않은 폴란드의 경제는 아직 한국만큼 높지 않았다.

폴란드는 세계대전당시 독일에게 강하게 저항하다가 수도 대부분의 건물이 폭격을 맞아 부서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의 건물들은 예전 자료들을 참고하여 가능한 비슷하게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폴란드를 가게되면 수도인 바르샤바 외에 꼭 가봐야할 도시가 있다.

바로 크라쿠푸 라는 도시다.

이 도시는 예전 폴란드의 수도였다.

크라쿠푸에는 큰 소금광산이 있다.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아닌 광산에서 소금을 캐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광산에 속하는 이곳은 벽과 암석을 깎아만든 여러 조각들을 볼 수 있고 지하 내부에 거대한 소금 예배당도 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아우슈비츠라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다.

원들러리스트라는 영화의 실제 배경인 수용소로도 유명하다.

백만명이 넘는 유대인이 이곳에서 학살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수많은 폴란드 인들도 죽임을 당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항상 여러명의 유대인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폴란드 친구에게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었다.

나는 한국이 일본을 생각하는 감정과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독일군에 의해서 폴란드가 점령당하고 또 많은 폴란드인들이 죽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국가적으로 독일은 폴란드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폴란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독일 보다는 러시아를 싫어한다고 했다.

독일군 점령시절 폴란드 저항군과 러시아군이 함께 독일군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일군과 폴란드 저항군이 싸운 뒤 나중에 나타나 폴란드를 점령했다고 한다.

공산주의시절 러시아어가 제일 외국어로서 나이드신 분들은 러시아어를 학교에서 배웠다.

현재 민주주의로 체제 변환이 된 후 영어가 제일 외국어로서 젊은 사람들이 배운다고 한다.

폴란드에서의 삶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며 마무리하게 되었다.

## 군대

한국에서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나는 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폴란드에 있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학을 졸업할 나이라서 그런지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생활 했다가 드디어 독립해서  
산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홀로 어디서 지내야할지 고민하다가 혜화동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다.

지하철 혜화역에서 걸어서 15 분정도 거리에 위치한 5 층  
건물의 2 층과 3 층이 고시원이었다.

2 층은 여자 공동화장실, 여자방들 그리고 부엌이 있고,  
3 층은 남자 공동화장실 그리고 남자방들이 있었다.

한 방에 한명씩 사용하는데 각 방은 가로 1.8m, 세로 2m 정도  
크기였다.

방안에는 작은 침대와 침대 다리 부분의 위쪽으로 걸쳐져있는  
옷장 그리고 오른쪽에 침대와 붙어있는 작은 책상이 있다.

내 방의 경우 한달에 25 만원이었고 좀 더 큰방은  
30 만원이었다.

그리고 부엌에는 큰 밥솥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밥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나머지 반찬은 각자 알아서 준비해서  
먹게되어 있었다.

부엌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름표가 붙은 반찬통들이  
가득했는데, 가끔씩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반찬을 먹었다고  
화내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나는 군대를 가기위한 준비를 하였다.

우선 병역판정검사라는 것을 받았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시간에 가보니 나 외에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서 남자들이 득실 거렸다.

이전에 해봤던 일반적인 신체검사들과 비슷했는데, 두가지 다른게 있었다면 정신검사와 고추검사였다.

정신검사는 뻑뻑한 문제들을 풀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게 힘들었다.

그리고 고추검사는 검사관 앞에 남자 네명정도씩 서서 팬티를 내리고 중요한 부분의 상태 및 피부등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고추부분에 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고 한다.

남자들만 득실 거리고 모두가 하는 검사라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았다.

정신상태 및 다른 모든 부분이 양호 하였으나, 시력이 많이 안좋은 관계로 3 급을 받았다.

듣기로는 4 급 또는 5 급부터 상황에 따라 입대를 안해도 된다고 한다.

나는 군대를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체등급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다.

이왕이면 1 급을 받고 싶었는데, 시력으로 인하여 3 급을 받게되서 아쉬웠다.

이 외에도 군대를 막상 가려고 하니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이 중 나는 카투사를 가기로 했다.

카투사는 미군들과 함께 영어로 생활하며 지내는 한국군으로 입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6.25 전쟁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산주의의 침공을 일찍 차단하지 않으면 3 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빠르게 미국의 UN 대사가 소련을 제외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몰아내기로 결의안을 내었다.

UN 이사회는 미국의 결의안을 찬성 9 표 기권 1 표로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한국전쟁 3 년동안 한국에서 죽은 미군은 약 4 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측에 군대를 파견한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의 전사자다.

그리고 미국은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정식명칭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동맹의 내용은 한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도와주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 한국이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한국의 군사력을 보았을 때, 사실상이 조약의 일방적인 수혜자는 한국이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동맹을 맺기 원하지만 상호방위조약으로 얹힌 양자동맹은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세나라 뿐이다.

미국은 더이상 이런 부담되는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

군사적으로 아니 전 분야에 걸쳐서 전쟁 직후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에 미국과의 동맹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좌절시킨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의 군사적 보호를 담보하여 지금까지 강한 안보로 나라를 발전 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였다.

지금의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하였을때, 숫자적으로는 북한이 많지만 질적으로는 경제를 바탕으로한 한국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 억지력은 두 나라가 비슷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측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을때 생길 수 있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진다고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한국은 분명 그 이상의 이익을 얻고있다.

최소한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강한 안보 즉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이 북한 그리고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평화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군사력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카투사를 가기위한 준비로 나는 토익시험을 보았다.

미군과 함께 생활하는 군인이어서 그런지 영어시험 점수가 일정이상이어야만 입대신청이 가능하였다.

다행이도 카투사에 지원할 수 있는 토익시험 기준점수보다 높게 나와서 지원할 수 있었다.

이제 군생활을 시작하는구나 생각하며 입대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투사로 입대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카투사는 우선 영어시험 점수로 지원서를 한번 거른뒤,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 뽕뽕이를 돌린다고 한다.

즉 기준에 맞는 지원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수의 인원만 뽑는 것이다.

내 경우 지원자격은 갖추었지만 뽕뽕이에서 떨어져서 카투사를 못가게 되었다.

당연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카투사를 떨어진 뒤, 고등학교도 재 입학하여 더 다녔고 대학도 졸업한 내 경우, 현역으로 가기에는 좀 나이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려면 병역의 의무를 꼭 해야 하기에 관련 정보들을 더 알아 보았고 전문연구요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문연구요원은 나라에서 지정한 업체의 연구기관에서 3 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행할 수 있다.

이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한 기본조건 중의 하나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병무청에 연락하여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으로 있으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고 알게 되었다.

카투사 입대에 떨어지고 혜화동 고시원에서 생각보다 더 오래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몇몇 대학들의 석사과정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였다.

그리고 포항공대라는 곳에서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 인터뷰

한국에 돌아와서 어렸을 적에 다녔던 사랑의교회에 다시 출석했다.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던 나는 사랑의교회 대학부 멤버로 있었다.

내가 속한 소그룹 민정리더와 멤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인터뷰를 위해서 포항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다.

포항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기차로 5시간 정도 걸렸다.

경주를 들렀다가 포항으로 돌아가는 기차였다.

그리고 포항역에서 포항공대까지도 한시간 정도 버스를 타야했다.

포항에 도착했을 때 시골도시 느낌이 났었지만, 포항공대 캠퍼스는 멋진 느낌이었다.

포항공대 기숙사가 있는 지역에서 계단으로 오르는 언덕을 힘들게 올라간 뒤 조금 더 걸어가자 큰 시계가 중앙에 있고, 가운데 빈 공간을 중심으로 물이 흐르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있는 멋진 대학 건물을 볼 수 있었다.

인터뷰 정보에 적힌 주소의 건물을 찾아 들어갔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인터뷰가 있는 방의 위치까지 종이 이정표를 찾아 쉽게 따라갈 수 있었다.

나 외에도 다른 학생들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순서를 기다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안내자를 따라 인터뷰 방에 들어서니 교수님 세분이 앉아 계셨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폴란드에서 살았다는 독특한 내 삶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삼십분 정도의 인터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다.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더듬 거리곤 하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자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걸 하는 후회들이 몰려왔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나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멤버들이 인터뷰가 어땠냐며 묻는 문자들이 도착했다.

좀 아쉬웠다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웠다고 대답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시간이 흐르고 인터뷰에 대한 결과를 받았다.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바르샤바공대라는 대학이 내가 남한학생으로 최초로 다닌 대학이라 인지도가 전혀없었다.

그래서 인터뷰 자체의 기회도 없을 뻔 했다고 한다.

그래도 폴란드라는 독특한 나라에서 살았던 나에 대해서  
궁금하여 인터뷰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며 바르샤바공대가 폴란드 최고의 공대인 것과  
독특한 경험이 있는 나에 대한 궁금함이 나를 입학  
시켜보기로 한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한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같다.

2 월 초 한국에 들어온 후 고시원에 있는지 반년 정도가  
흘렀다.

그 사이 카투사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포항공대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원래 계획대로 라면 이때쯤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 초에  
있는 대학원 입학식까지는 아직 반년 정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어느날 지방에 살고있는 연희 이모에게서 전화연락이 왔다.

"승화야 이모란다. 잘 지내니?"

난 반가운 이모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승화가 다 컸구나,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고. 한국에서 있을 곳을 찾고 있다고 엄마에게 들었어."

"고려대학교 근처에 이모가 잘 아는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단다. 그리고 숙박비도 따로 없단다."

"승화가 원하면 거기서 지내도 괜찮을것 같은데, 어떠니?"

앞으로 6 개월동안 어떻게 고시원을 포함한 생활비를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던 나는 이모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

연희 이모는 엄마랑 가장 친한 동생이다.

어렸을적 이모네 놀러가게 되면 이모가 나를 앉혀놓고, 두 세 시간씩 성경공부를 시키셨던 기억이 있다.

내 기억으로는 그때 이모랑 이모부가 네비게이토라는 선교단체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모를 생각하면 어려운 성경공부시간이 떠오른다.

나는 고시원의 집을 정리하고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5 층짜리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작은 고시원 방이었는데 반년 동안의 짐이 꽤 쌓였는지 생각보다 옮길것들이 많았다.

새로 들어가게 된 곳은 검붉은 빛깔의 아파트 3 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지만 다행이 새로운 형제라며 집에 있던 선교회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 없이 3 명이서 한번에 짐을 다 옮길 수 있었다.

## 세계로선교회

새롭게 있게 된 곳은 세계로선교회 아파트 훈련관이라고 했다.

이곳 선교회에서는 남자 사람들은 형제님으로 여자 사람들은 자매님으로 호칭을 부른다.

나도 이곳에서 지내면서 같은 크리스찬인 경우 형제님 또는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세계로선교회는 예전 한국 네비게이토라는 선교회의 해외선교팀이, 선교사를 받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해외로 선교를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분리되어 만들어진 선교회라고 한다.

이모도 예전에는 네비게이토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세계로선교회 소속이라고 한다.

이 아파트훈련원은 세계로선교회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 훈련을 하는 곳이었다.

반년동안 생활비를 절약한다는 생각에 들어온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다른 형제들과 생활하며 내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준 곳이 되었다.

세계로선교회 아파트훈련의 생활은 처음에 힘들었다.

우선 3 개의 방과 부엌이 있었는데, 방 하나는 공부나 조용히 묵상할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방 2 개와 거실에서 나를 포함한 8 명의 형제들이 함께 지냈다.

단지 숙식만 이곳에서 해결하고 나가서 자유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이곳에 있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영적건강 뿐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다고 고려대캠퍼스 운동장을 몇바퀴 뛰고 오고,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함께 모여서 점심을 먹고 교제를 하고, 한주에 한번 이상은 바로 옆에 있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가면서 한주에 한번 식사 당번이되어 8 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주일에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녀온 뒤,  
세계로선교회 회관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해야했다.

그 중 동원이형과 한필이형이 내 리더로써 나를 양육하였다.  
처음에는 다른 약속들 때문에 모임에 몇번 빠졌다가 혼나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파트 공동체 생활에  
적응해갔다.

성경공부 교제는 네비게이트 성경공부 교제를 사용하였고,  
모임을 시작할 때면 항상 성경암송 60 구절 중 12 개씩을  
암송하였다.

성경암송 60 구절은 네비게이트 선교회에서 5 개의 주제별로  
12 개씩의 암송구절을 모아놓은 것이다.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A. 새로운 삶 - Live the New Life
- B. 그리스도를 전파함 - Proclaim Christ
- C. 하나님을 의뢰함 - Rely on God's Resources
- D.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 Be Christ's Disciple
- E. 그리스도를 닮아 감 - Grow in Christlikeness

모임때마다 오늘 A 주제의 12 개 성경말씀을 암송했으면,  
다음 모임때는 B 주제의 12 개의 성경말씀을 암송하는 식으로  
A 부터 E 까지 5 개 주제의 암송 말씀을 돌아가면서  
암송하였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아서 암송시간에 성경암송구절  
카드를 보면서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카드를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성경을 읽기만 하고 외우지는 않았던 나에게 성경말씀  
암송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필요에 따라 말씀을  
떠올리고 더욱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각각의 주제별 암송말씀들은 다음과 같다.



## 성경암송 60 구절

### A. 새로운 삶 - Live the New Life

중심되신 그리스도 - Christ the Center

#### A-1.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 A-2.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그리스도께 순종 - Obedience to Christ

A-3.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A-4.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 말씀 - The Word

### A-5.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 A-6. 여호수아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 기도 - Prayer

### A-7.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A-8. 빌립보서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교제 - Fellowship

A-9. 마태복음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For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A-10. 히브리서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증거 - Witnessing

A-11. 마태복음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12.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로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 B. 그리스도를 전파함 - Proclaim Christ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 All Have Sinned

### B-1.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 B-2.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죄와 형벌 - Sin's Penalty

### B-3.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B-4. 히브리서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 Christ Paid the Penalty

B-5.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B-6. 베드로전서 3: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For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you to God.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by the Spirit,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 Salvation Not by Works

B-7. 에베소서 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B-8. 디도서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그리스도를 모셔야함 - Must Receive Christ

B-9.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B-10. 요한계시록 3:20

볼 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구원의 확신 - Assurance of Salvation

B-11. 요한일서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B-12.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 C. 하나님을 의뢰함 - Rely on God's Resources

### 성령 - His Spirit

#### C-1.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 C-2. 고린도전서 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ay understand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 능력 - His Strength

#### C-3.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들리라.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 C-4.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성실 - His Faithfulness

#### C-5. 예레미야애가 3:22-23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C-6. 민수기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nor a son of man, that he should change his mind. Does He speak and then not act? Does He promise and not fulfill?

평안 - His Peace

C-7. 이사야 26: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C-8. 베드로전서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공급 - His Provision

C-9. 로마서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C-10.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유혹에서 도우심 - His Help in Temptation

C-11. 히브리서 2: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Because He Himself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C-12. 시편 119:9,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 D.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 Be Christ's Disciple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 Put Christ First

### D-1. 마태복음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 D-2. 누가복음 9: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죄에서 떠남 - Separate from the World

### D-3. 요한일서 2:15-16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everything in the world - the cravings of sinful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 D-4.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견고함 - Be Steadfast

#### D-5. 고린도전서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D-6. 히브리서 12: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앓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opposition from sinful men,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다른 사람을 섬김 - Serve Others

D-7. 마가복음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D-8. 고린도후서 4: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的主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For we do not preach ourselves, but Jesus Christ as Lord,  
and ourselves as your servants for Jesus' sake.

후히 드릴 것 - Give Generously

D-9. 잠언 3:9-10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Honor the Lord with your wealth, with the first fruits of  
all your crops; then your barns will be filled to  
overflowing, and your vats will brim over with new wine.

D-10. 고린도후서 9:6-7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Remember this: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Each man should give what he has decided in  
his heart to give,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세계 비전 - Develop World Vision

D-11.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D-12.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 E. 그리스도를 닮아 감 - Grow in Christlikeness

사랑 - Love

### E-1. 요한복음 13: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 E-2. 요한일서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tongue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겸손 - Humility

E-3. 빌립보서 2:3-4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s, but also to the interests of others.

E-4. 베드로전서 5:5-6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Young men, in the same way be submissive to those who are older. All of you,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because,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순결 - Purity

E-5. 에베소서 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But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E-6. 베드로전서 2: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Dear friends, I urge you, as aliens and strangers in the world, to abstain from sinful desires, which war against your soul.

정직 - Honesty

E-7. 레위기 19:1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Do not steal. Do not lie. Do not deceive one another."

E-8. 사도행전 24: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So I strive always to keep my conscience clear before God  
and man.

믿음 - Faith

E-9.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E-10. 로마서 4:20-21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선행 - Good Works

E-11. 갈라디아서 6:9-10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Therefore,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espe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E-12.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이 60 구절 외에도 처음 선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였던 네비게이토 교제에는 그리스도와의 새출발이라는 주제의 성경암송 5 구절과,

1. 구원의 확신 - 요한일서 5:11,12
2. 기도응답의 확신 - 요한복음 16:24
3. 승리의 확신 - 고린도전서 10:13
4. 사죄의 확신 - 요한일서 1:9
5. 인도의 확신 - 잠언 3:5,6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주제의 성경암송 8 구절이 있었다.

1. 그리스도안의 생활 - 요한복음 15:5
2.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 사도행전 20:32
3.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 로마서 8:14
4. 믿음에 의한 생활 - 고린도후서 5:7
5. 사랑에 의한 생활 - 요한일서 4:11
6.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 요한일서 1:7
7. 증인으로서의 생활 - 베드로전서 3:15
8. 후히 드리는 생활 - 고린도후서 9:7

## 캠퍼스전도

말씀 암송 외에도 아파트훈련을 하면서, 리더였던 동원이형과 한필이형을 따라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도 좋았다.

한팀이 두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했는데, 자매들은 남자나 여자에 관계없이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형제들은 남자에게만 접근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보통 리더가 전도를 할때 멀찍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같이 서 있기도 하고, 배운것으로 내가 전도를 할때 리더가 기도해주거나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다.

그때 사용하던 전도지는 보통 두가지 였는데, 그 중의 하나는 한쪽에는 애벌레의 그림과 설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절벽의 그림과 설명이 있는 전도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사영리라는 전도지 였다.

애벌레의 그림이 있는 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들이 나무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유는 모른채로 열심히 따라갔다.

이들 애벌레들은 가끔씩 보이는 나비들을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갈수록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좁아지고, 서로 다투고 떨어지는 애벌레들도 생기지만 모두가 무작정 위를 향해 기를쓰고 올라간다.

주인공 애벌레는 마침내 모두가 올라 가 보려고 하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인공 애벌레는 허무하게 뒤에서 밀치는 애벌레로 인해서 다시 내려와야 했고, 내려오면서 다른 애벌레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나무꼭대기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나 다른 애벌레들은 듣지 않는다.

주인공 애벌레는 주변을 돌아보던 중 위를향해 올라갈 때는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멈추어서서 자신을 줄로 꿰뚫어대는 애벌레를 만나게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된다.

주인공 애벌레도 고통스럽고 주변에서 비웃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고치를 만든다.

그리고 모든 애벌레들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모르고 부러워했던 나비가 된다.

전도지의 다른쪽에 있는 두개의 떨어져 있는 절벽 그림에는 각각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다.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절벽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적힌 절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가운데 죄라고 적힌 공간으로 인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절벽의 그림이 있는 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애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한 생명을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기위해 학교에 다니고 직장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교육하고 사회적 지위를 굳혀가며 수고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사람들은 돈, 명예, 학문, 쾌락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공허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본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가 들어왔고 이 교제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보여 주십니다.

1. 당신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 장 23 절]

당신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며 불행하게 합니다.

2.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당신의 죄를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 장 27 절]

3. 형벌은 사망 곧 지옥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 장 8 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들은 선한 일들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며 교육이나 철학 또는 종교 의식을 충실히 행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저히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 장 6 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 장 8-9 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 장 9 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고린도전서 1 장 21 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 장 12 절]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해결할 수 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쪽의 절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힌 십자가로 이어진 그림이 나오고 설명이 이어진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 장 8 절]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 장 3-4 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 장 6 절]

다리는 놓여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 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 장 24 절]

당신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들은 것을 당신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들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당신의 마음과 삶에 모셔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 들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 장 11-13 절]

또 다른 자주 사용했던 전도지는 사영리라는 전도지였다.

내용은 절벽 그림이 있는 전도지와 비슷하다.

사영리라는 뜻은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네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의미다.

첫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관한 말씀 구절이 나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 장 16 절]

"내가 온 것은 양(당신)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 장 10 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두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다.

그리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말씀 구절과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말씀 구절이 나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 장 23 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 장 23 절]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으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귀는 끊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고, 사람들은 선행, 철학, 종교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보려고 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한다.

세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 장 8 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 장 3-6 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 장 6 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의 세가지 원리를 아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네번째 원리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다.

그리고 믿음과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말씀 구절이 나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 장 12 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 장 8-9 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 장 20 절]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한다.

사영리 전도지의 뒷 부분은 다음의 글들이 적혀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도자가 한 문장씩 아래의 기도문을 읽으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이 기도문을 따라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신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 장 20 절의 약속에 의하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까요?

하지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을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 장 11-13 절]

살아계신 그분은 영접한 순간부터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적혀있다.

그것은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यो.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요한복음 14 장 21 절]

그리고 기차의 그림이 있는데 맨 앞쪽에는 기관차가 그 다음에는 연료차 그리고 객차가 순서대로 있다.

기관차 부분에는 사실이라는 글이, 연료차에는 믿음이라는 글이, 그리고 객차에는 감정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으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 장 20 절][골로새서 1 장 27 절]

2.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 장 14 절]

3.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 장 12 절]

4.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 장 24 절]

5.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 장 10 절][고린도후서 5 장 17 절]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권면이 적혀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 장 11 절]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 장 7 절]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7 장 11 절]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3.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 장 21 절]

4.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마태복음 4 장 19 절][요한복음 15 장 8 절]

5.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 장 7 절]

6.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5 장 16-17 절][사도행전 1 장 8 절]

그리고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적혀있다.

히브리서 10 장 25 절을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개의 나무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이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생활을 해야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캠퍼스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가가면 가끔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는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 주었다.

솔직히 캠퍼스에서 전도를 위해 접근 했을때 우리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을 보고 기뻐다.

아파트훈련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하면서 조금씩 변해 갈때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반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포항으로 새로운 길을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변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도된 형제들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생겼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나의 몸이 건강해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세계로선교회를 통해 암송하게된 성경구절이 늘어났다.

세계로선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은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형제들이 생기게 된 것과 성경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아파트훈련을 받기 전 폴란드에서의 회식들이나 고시원에서의 술자리등으로 속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었는데 이 때 위궤양 진단을 받았었다.

아파트훈련을 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포항에 내려가기 전 다시한번 검사를 받았을 때 위궤양이 사라졌고 위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번은 리더였던 동원이 형이 나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라고 가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꺼야?"

"전 아프리카 힘들것 같아서 가기 싫어요.

그냥 한국에서 즐겁게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할게요."

나의 대답이었다.

아직은 선교에 대하여 나를 보내소서가 아닌, 너를 보내소서 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세계로선교회에서 지은이라는 자매를 알게되었다.

유난히 형제들과 자매들을 구분하고, 남녀칠세 부동석을 실천하는 선교단체였지만, 여러 모임들을 가지면서



지은이라는 자매를 알게 되었고, 리더들이 모르게 만나서  
함께 식사하기도 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이제 포항공대 대학원 과정에 입학해야할 때가  
되었다.

포항으로 떠나는 날 아파트훈련을 함께한 형제들이 강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마중나와 주었다.

지은자매도 배웅 해주러 나오겠다고 했지만, 선교회 형제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만나고 있던 관계로, 형제들이 배웅  
나온다고 하기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큰 공항가방 두개에 모든 짐을 집어넣고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다.

아파트훈련을 함께한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그리울  
거라고 했지만, 서울에 틈틈이 방문할 때마다 다시 볼  
예정이라 떠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 포항공대

새로운 삶의 장소인 포항을 향해서 출발하였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서울에서 포항까지 5시간이 걸려 도착하였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포항공대로 갔다.

큰 가방 두개를 끌면서 드디어 포항공대 기숙사에 도착하였다. 입학시기라서 그런지 나 외에도 짐가방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며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여러명 있었다.

가족이 있는 대학원생들이 지낼 수 있는 대학원 아파트가 있었고, 나는 가족이 없는 관계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함께 머무는 학생식당 근처의 생활관이라고 불리는 일반 기숙사동으로 갔다.

학교에서 받은 입학자료에 적혀있는 생활관 내 배치받은 기숙사 건물로 향했다.

기숙사 건물 입구로 들어가자 가운데 긴 복도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양옆으로 기숙사 방들이 있다.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은 건물 가운데 부분에 있었고,  
계단으로 윗층에 올라가니 휴게실 공간이 있었다.  
휴게실에는 TV 한대와 소파가 있었다.

그리고 휴게실을 지나 다시 양쪽으로 기숙사 방이 있는 긴  
복도가 있었다.

짐을 끌며 방마다 적혀있는 번호를 보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나에게 배정된 방을 찾아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숙사 방은 3명이 지낼 수 있는 구조였다.

2 층침대 하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침대하나, 그리고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옷장이 있었다.

옷장이나 책상, 침대등이 모두 철제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첫 기숙사의 느낌은 차가운 느낌이었다.

2 층침대 위쪽과 아래 쪽에는 이미 누군가의 책이랑 옷들이  
놓여있었다.

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 침대에 내 짐을 내려 놓았다.

이번에 처음 입학한 사람들이 기숙사에 함께 있는가 싶었는데,  
침대에 있는 짐들을 보면 이미 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인 것 같다.

끌고 들어온 짐을 풀고 빈 옷장과 빈 책상에 내 짐들을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

어느정도 짐 정리를 마쳤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기숙사 방문이 열리며 남자 두명이 들어왔다.

"어, 새로운 사람이 있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된 승화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오늘 새로 함께할 방돌이가 온다고 들었어요. 난  
진욱이고 여기는 덕희라고 해요."

이렇게 나와 덕희 그리고 진욱이형은 처음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게된 동기였다.

나를 제외한 두명은 학부과정부터 포항공대에 있었고, 대학원 과정은 나와같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덕희는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였고 포항공대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진욱이형은 우리보다 두살이 많았고 함께 기숙사에 살면서 우리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아직 학교에서 어떻게 식사해야 하는지 모르는 나는 덕희와 진욱이형을 따라 학생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식판을 들고 세가지 종류의 음식중 원하는 음식을 고르고 줄서서 배식을 받은 후 식권을 내고 먹었다.

기숙사가 있는 생활관에서 가장 가까운 학생식당은 지곡회관이라고 불리는 건물 내에 있었는데, 옆에 호수가 있는 예쁜 건물이었다.

기숙사에서 첫날을 보냈다.

진욱이형의 코고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던 것을 빼면, 잠자는데 별로 불편한 점은 없었다.

코고는 소리는 이미 아파트훈련을 하면서 많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화장실이 방에 없는 것이 좀 불편했다.

새로운 곳이어서 그런지 일찍 잠에서 깼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와 기숙사 공동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들어왔다.

그래도 같은 층에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어서 다행이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같은 방을 쓰는 두명의 방돌이도 아직  
잠들어 있었다.

여기서는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사람들을 방돌이라고 부른다.

"주님,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잘 부탁드립니다."

침대에 다시 누워서 기도를 하고 처음 맞이하는 이곳  
포항공대에서의 하루가 어떨지 생각해보았다.

이층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나더니 방돌이들이 일어나  
방밖으로 나갔다.

아마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방돌이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잘 잤어요?"

"일찍 일어났네, 랩에 갈 준비해야지."

"있다가 아침 같이 먹고 학교에 가자."

"네."

진욱이형과 얘기를 하고 나도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함께 아침식사를 먹고 난 방돌이들을 따라 연구실이 있는 학교건물로 갔다.

여기서는 연구실이라는 말보다 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기숙사 건물에서 학교건물로 가기위해서 작은 언덕을 올라야 하는데 오르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다.

"헉헉,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에 가야하는 건가요?"

"좀 힘들지? 여기가 78 계단이라고 부르는 곳이야."

"계단이 78 개가 있어서 78 계단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뭐 지내다 보면 익숙해져."

"이렇게라도 우리 공돌이들이 운동 좀 해야지."

덕희와 진욱이형과 함께 대화를 하며 78 계단을 오르고  
우리는 학교건물로 향했다.

각자 다른 학과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 달랐다.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얘기를 듣고 랩으로 향했다.

이전 인터뷰를 위해 내가 속한 랩이 있는 컴퓨터공학과  
건물을 가 본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트워크관리랩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방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노크를 해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입구쪽에 둥그란 테이블과 소파 그리고 의자 몇개가 있었고,  
길쭉한 방에 책상과 책꽂이가 2열로 나열되어 있었다.



아직 랩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 테이블 옆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아 있었다.

잠시 시간이 흐르자 문이 열리며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하기도 전에 먼저 인사한 이 여학생도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것으로 보아 나와 같은 신입생인것 같았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네트워크관리랩에 온 승화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여기 랩에 오게 되었어요. 전 소정이라고 해요."

내 예상대로 이번에 새로 대학원 과정에 입학했다고 한다.

나와 소정이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간단한 대화들을 나누었다.

한시간 정도 흘렀을까 책 보기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선배가 들어왔다.

랩장을 맡고 있는 명섭선배라고 한다.

우리는 명섭선배가 지정해준 책상에 앉았다.

책상에는 컴퓨터 한대가 덩그라니 놓여 있었다.

이 컴퓨터가 앞으로 내가 사용할 컴퓨터라고 한다.

우선 컴퓨터 셋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교수님이 오시면  
신입생들이 인사하러 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새로 이곳 랩에 오게된 학생은 나와 소정이 그리고  
성철이었다.

우리 지도교수님의 사무실은 연구실의 복도 맞은 편에 있었다.  
네트워크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홍원기교수님 이셨다.

랩 신입생들은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랩장님이 랩원들을  
한명씩 소개시켜 주셨다.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생활과 수업은 많이 달랐다.

학부때는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왔는데,  
대학원 과정은 수업이 없더라도 랩에 출퇴근을 해야했다.

반드시 출퇴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과제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랩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랩에 나가지 않았을 경우 받게되는 눈총이 있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은 학비를 면제 받고 매달 칠십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받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좋았다.

박사과정의 경우 백이십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받고, 결혼해서 가족이 있는경우 교수님께서 더 챙겨주시기도 한다.

대학원 부터는 월급받는 직장인과 비슷하다고 하던데 맞는 말이다.

직장 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일하지만 배우고 또 좋은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제 정말 자신의 전공분야가 생겨서 그런지 학부때 하던 보통 듣고 이해하고 답하던 강의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읽어보고 분석하고 또 내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는 강의들이었다.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정말 학업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다.

홍원기교수님의 지도아래 랩원들과 함께 난 처음으로 학회에  
논문을 써보기도 했다.

석사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주 저자인 논문 두 편과 다른  
랩원들의 논문을 도와주면서 내 이름이 들어간 논문 두 편  
이렇게 네 편의 논문들을 출판했다.

내가 연구한 분야는 네트워크관리 분야였는데, 기숙사  
생활관의 네트워크 장비들과 포항공대와 외부 인터넷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트래픽 특징을 분석하는 석사학위 논문을 적었다.

1 학년때는 정말 많은 도움을 랩원들에게 받았고, 2 학년때는  
이제 나도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그 중 인도에서 왔다는 디팔리 학생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학생을 도우며 연구했다.

바르샤바공대 학부과정에서는 주로 교수님과의 만남은  
수업시간 외에 수업질문 그리고 시험성적을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 면담하는 시간정도 밖에 없었는데, 이곳 대학원

과정에서는 랩 생활을 하면서 연구하는것 외에도 지도교수님  
그리고 랩원들과 MT, 등산, 배드민턴, 스키, 검도,  
마라톤대회, 스타크래프트등의 운동 및 게임을 같이 하면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 효자교회

포항공대에서 학업 외에 중요한 다른 일들도 있었다.

우선 안타깝게도 내가 있는 랩에서 함께 교회를 다닐 사람들을 찾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도 다행히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방돌이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따라갔다.

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진욱이형과 덕희를 따라 주일에 학교근처에 있는 효자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주님께 감사한것은 방돌이들을 통해서 좋은 만남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방돌이들을 따라 효자교회 청년부에 속하게 되었고, 방돌이들이 이미 하고있던 주일학교 고등부에 나도 따라서 선생님을 하게 되었다.

이곳에 오기전 선교회에서 성경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한 것들을 이곳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경말씀 뿐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부할때 수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었다.

가끔씩 연구실까지 찾아와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귀여웠다.

한번은 수능을 앞두고 효자교회 고등부에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기도회를 하는 모임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간적이 있었다.

그 때 내 옆에 앉아있던 처음보는 학생에게 이번에 수능을 보는가 보구나 잘 보기를 기도할께 라고 얘기 했더니 그 학생이 나를 보면서 자기는 재수생이라고 높임 말을 쓰라고 했다.

나는 그 학생에게 난 현재 대학원생이고 여기 고등부 선생님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그 학생은 죄송하다고 하고 난 괜찮다고 하는 기분 좋은 해프닝도 있었다.



## 인터콥

방돌이들을 통해서 알게된 또 다른 예배 모임은 포항공대 수요일예배 모임이었다.

서로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학교 내 크리스찬들이 수요일 저녁에 학교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이었다.

나도 방돌이들을 따라 이 모임에 가보게 되었는데, 열명에서 스무명정도의 학생과 교수님 한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었다.

포항공대 수요일예배의 말씀은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오신 바울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해주셨다.

난 이 수요일예배의 찬양팀에 속하게 되었다.

이 모임의 찬양팀 멤버들은 예배할때 찬양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및 운영등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였다.

포항공대 수요예배를 통해 찬양팀의 리더인 상학이형 그리고 함께 멤버로 섬긴 수진누나, 한나누나, 진석이형, 준호형, 수용이를 알게되었다.

틈틈이 바울목사님이 찬양팀 멤버들이 수고한다고 하시며 수요예배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사 주셨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인터콥 선교단체에서 비전스쿨이라는 선교훈련을 한다고 해서 받아보기로 하였다.

랩에서 연구를 하다가 저녁에 비전스쿨 훈련시간이 되면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애기한 후 꾸준히 훈련에 참석하였다.

아파트훈련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훈련이었고, 비전스쿨은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부담을 갖게하는 훈련이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인류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타락한 창조물에서 새 창조물로서의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선교의 성경적 근거로는 대위임령을 제시한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 장 18-20 절]

초기 기독교 선교사인 바울은 선교란 좌절한 피조물들에게 남아있는 소망,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로마서 8 장 18-27 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새 창조의 첫 열매라고 선언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단언하였다.

[고린도후서 5 장 17 절]

이스라엘의 경우 아브라함의 때에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3 장 6-8 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게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선교를  
바울은 얘기한다.

[로마서 9-11 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 장 13 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았으니라.

[로마서 10 장 17 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 장 44-45 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 장 46-48 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고 행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열방을 향한 그분의 선교에 드린다는 것이다.

선교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추구하시는 계획과 목표도 보여준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창세기 1 장]

지구를 돌보고 보호하는 임무

[창세기 2 장]

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임무

[창세기 12 장]

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시고,  
이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성경은 교회가 모든 나라들을 제자삼고 제자화 시키고  
가르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나누고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포항에서 지내면서 학업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고,  
또 신앙적으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것은 감사하지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지지 않고 지옥에  
가게되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 포항공대교회

포항공대 수요일예배는 포항공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난 랩에서 가깝게 지내던 동현선배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던 형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공대생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포항공대교회에 선배와 함께 나갔다.

포항공대교회는 헌신적으로 공대 내 예배를 섬기시던 정진욱교수님과 한분의 전도사님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몇몇 포항공대 수요일예배 찬양팀 멤버들이 참석하면서 시작하였다.

정진욱교수님께서서는 전도폭발훈련이라는 모임을 만드셨고, 상학이형과 수진누나 그리고 나와 한나누나가 교수님으로부터 전도폭발훈련을 받았다.

주중에 한번씩 교수님택에 모여 함께 식사교제를 하고,  
전도폭발훈련을 하며 학교에서 실전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  
한 단계씩 질답을 통해 다가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지  
않나요 하며 불평하던 내 모습에서, 온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통해 죄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고  
나를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스스로 죽음 당하심으로 이미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불평하던 나의 모습이 죄송스러웠다.

포항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석사과정도 마지막 디펜스를  
남겨놓게 되었다.

석사논문에 대한 디펜스 날짜가 다가왔다.

완성된 논문을 미리 참석하실 3 분의 교수님들께  
전달해드리고, 디펜스 날에 발표를 하고 한시간 정도 질의  
응답을 한 후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학위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50 페이지 정도되는 영어로 쓴 논문을, 지도교수님을 포함한 3 명의 교수님들께 전달해 드렸고, 20 분간 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를 하였다.

한 시간 정도 논문에 대한 교수님들의 질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행이 큰 어려움 없이 잘 대답할 수 있었다.

디펜스를 마치고 교수님들께서 상의하신다고 나가 있으라고 하셔서 세미나실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

십여분이 흐른 후 지도교수님께서 축하한다고 하시며 석사학위 디펜스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알려주셨다.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나는 이 소식을 기도를 부탁했던 가족과 교회 멤버들에게 전했고 랩 식구들과 기숙사 방돌이에게도 전했다.

긴장을 풀고 기숙사 침대에 누워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곳 포항공대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신앙적으로 학업적으로 많이 배우고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 전자통신연구원

그 동안 석사학위를 준비하며 미뤄왔던 군대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기로 하였다.

보통 학부과정 중 또는 학부과정을 마치고 나라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하는것을 산업기능요원 이라고 한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제대로된 직장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군복무 기간이 끝나면 근무했던 곳을 보통 그만두게 된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나라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이라고 부르는데, 직장인과 다를바가 없는 생활을 하고 군복무 후에도 직장에 그냥 남는다.

단 나라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군복무 기간내 무단으로 퇴사를 할 수 없고, 가끔씩 근무지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병무청에서 검사를 나온다.

그리고 복무중 한달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어느 업체로 전문연구요원을 갈지 고민하던 중 포항공대 박사를 졸업하고 바로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난다는 선배를 알게 되었다.

지도교수님과 랩 식구들이 말렸지만 주님께서 주신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신다고 하였다.

포항공대교회 멤버들은 귀한 마음이라고 선배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분명 포항공대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정받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회사나 연구원 또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길을 걷는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 장 13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 장 28 절]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있다면 또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이나 소망이 있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신데, 어느순간 나의 걸어온 길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의 생각으로 주님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곳 포항에서 신앙적으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난 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가게되었다.

포항에서 정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포항공대 기숙사에서 전자통신연구원 기숙사로 이사를 하였다.

내가 배정된 팀은 융합서비스연구 팀이었다.

새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영미선임과 선환선임이 내 사수로써 하나씩 하나씩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이곳의 직급 체계는 처음 원급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십년 정도 있으면 선임 연구원이 되고 다시 십년 정도가 지나면 책임 연구원이 된다.

그리고 직장 내 멘토 제도를 두고 멘토를 사수라고 불렀다.

그동안 직원을 별로 뽑지 않아서 내 경우, 7 년만에 이 팀에 처음들어온 신입이라고 한다.

전자통신연구원 입사를 위해 함께 면접을 본 같은 나이의 동기들이 있었다.

성주, 광원, 준호 모두 석사학위를 받은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입사한 동기였다.

다른 입사동기들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맞추어 각각 다른

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새로운 직장 생활을 배우며 틈틈이 입사동기들과 만남을  
갖기도 하고 연구원 생활에 적응해갔다.





## 늘사랑교회

대전에서 새로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늘사랑교회였다.

새로운 곳에서 일을 배우면서 너무나 힘들때,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늘사랑교회를 알게되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침례를 받기도 했다.

전자통신연구원 기숙사에서 걸어서 10 분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가까운 교회였다.

정승룡 담임목사님과 노성권 청년부목사님께서 인도해주시는 늘사랑교회의 예배와, 매일같이 저녁마다 찾아가 틈틈이 텅빈 교회본당에서 마음껏 주님께 내 마음을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대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며 지낼때 날 가장 힘들게 하던 한 가지는 마음의 공허함이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선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맞는건지 불확실한 마음이 날 힘들게 했던 하나의 이유였다.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늘사랑교회를 통해 일본단기선교를 다녀오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연구원분들이 연합하여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에 동참하여 병원을 찾아다니며 아픈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사역부를 섬겼다.

그리고 직장 동료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전자통신연구원 신우회를 통해 대덕연구단지 선교회를 알게되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몽골로 단기선교도 다녀왔다.

그리고 대전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콥 비전스쿨을 섬기기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다.

날 힘들게 하는 것 중의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대한 불확신이었다.

나의 좁은 관점에 사로잡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위해, 이러한 외적인 확증을 갖고 싶었다.

제자훈련, 홀리클럽, 중보기도학교 등에 참석해서 배우고 졸업했지만 아직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었다.

늘사랑교회에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세계로선교회 때부터 교제하던 지은자매가 나의 배우자가 되었다.

결혼을 하려면 남자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한다.

1. 가정의 신앙을 이킬 수 있는가
2.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가
3. 군필자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은자매와 결혼을 하게되었고,  
감사하게도 늘사랑교회 청년부와 세계로선교회에서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주고 축하 해주었다.

아내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나는 한달간 논산 훈련소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 다녀왔다.

전문연구요원 기간 중에 한달 동안은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시간은 흐르고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군복무를 마친 군필자가 된 것 외에는 변함 없는 매일 매일의  
시간이었다.



## 분당우리교회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계속되었다.

이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 뭔가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 티맥스소프트라는 곳에서 나에게 연락이 왔다.

자신의 회사로 와 달라는 스카웃 전화였다.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나의 이력을 보고 전화했다고 한다.

나는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티맥스소프트로 가기로 했다.

티맥스소프트는 분당에 위치한 회사였다.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는 동안 결혼도 하고 딸아이도 생겼다.

나와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 세명은 분당으로 이사를 하였다.

분당에서 다닐 교회를 찾다가 예전 사랑의교회 주일학교때 목사님이셨던 이찬수목사님께서 분당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이찬수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분당우리교회였다.

그리고 분당에서 이미 살고 있던 막네 외삼촌 가족, 사촌 누나들 가족도 이미 그곳에 출석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도 분당우리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회 주일학교는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딸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클 수 있었다.

아쉽지만 담임목사님이신 이찬수목사님과는 교회가 커지면서 많이 바빠지셔서 따로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당우리교회에서 내가 살던 지역인 이때구역을 담당하시는 김성원목사님께서 집과 회사를 심방해주시고, 또 틈틈이 만나서 신앙에 대한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다.

일적인 면에 있어서 예전 연구원에서는 기술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위주였는데, 티맥스소프트에서는 실제 상용화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였다.



상용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이전에 상용화를 생각하지 않고 기술만을 연구하던 것에 대한 부족함을 알게되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동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만큼이나 이를 상용화하여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실제 수 많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지만 상용화가 되지 못해 사라진다.

티맥스소프트의 회장님은 박대연이라는 분이셨다.

내 경우가 드물게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티맥스소프트로 스카우트된 케이스여서 그런지 가끔 회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박대연회장님은 우리나라가 더 잘 되려면 아일랜드처럼 소프트웨어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회장님을 통해 아일랜드에 대해서 처음 제대로 들어보았다.

아일랜드라는 곳이 나라가 아니라 그냥 영어 단어로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회장님의 말을

통해서 아일랜드가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IT 강국임을 알게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티맥스소프트에서 전자통신연구원에 있을 때보다 높은 직책과 연봉을 받았고 더 바쁜 하루 하루를 보냈다.



## 만나교회

한해 한해가 지나며 나에게 조금씩 해외에서의 삶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

이 마음에 대하여 평일날 교회에 가서 기도해 보려고 했지만, 송림중학교 강당 건물을 빌려쓰는 분당우리교회의 예배당은 평일에는 문이 잠겨 있었고 강당 지하에 위치한 기도실은 항상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

평일에도 기도할 수 있는 주변 장소를 찾던 중 만나교회의 메인 예배당 안에 있는 작은 기도실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거의 매일같이 회사를 마치고 만나교회 기도실에 가서, 내가 마음에 품고있는 생각들과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것들,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였다.

나와 내 가까운 주변에만 국한된 기도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중보기도학교에서 배웠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예전 중보기도학교에서 배웠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였다.

만나교회에 기도하기 위해 다니던 어느날, 만나교회 영어예배 포스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MEM(Manna English Ministry) 이라고 불리는 만나교회 영어예배였다.

해외로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던 나는 회사를 마치고 만나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주일 오전에는 분당우리교회에서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만나교회의 MEM 예배를 영어로 드리며 한해를 보냈다.

## 더블린트리니티대학

이 기간 중 티맥스소프트에 와서 알게 된 유럽 아일랜드란 나라의 더블린트리니티대학 박사과정을 신청해 보았고 감사하게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학금이 적용되어 3 년동안 학비를 면제받고 한달에 1500 유로씩 생활비를 받는 박사과정 이었다.

더블린트리니티대학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었다. 주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주신것으로 믿고 주저함 없이 대학측에 합격한 박사과정에 입학하겠다고 하였다.

아직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둘째 아이가 있어서 우선 내가 먼저 아일랜드 더블린이란 도시에가서 준비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더블린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영국을 거쳐 더블린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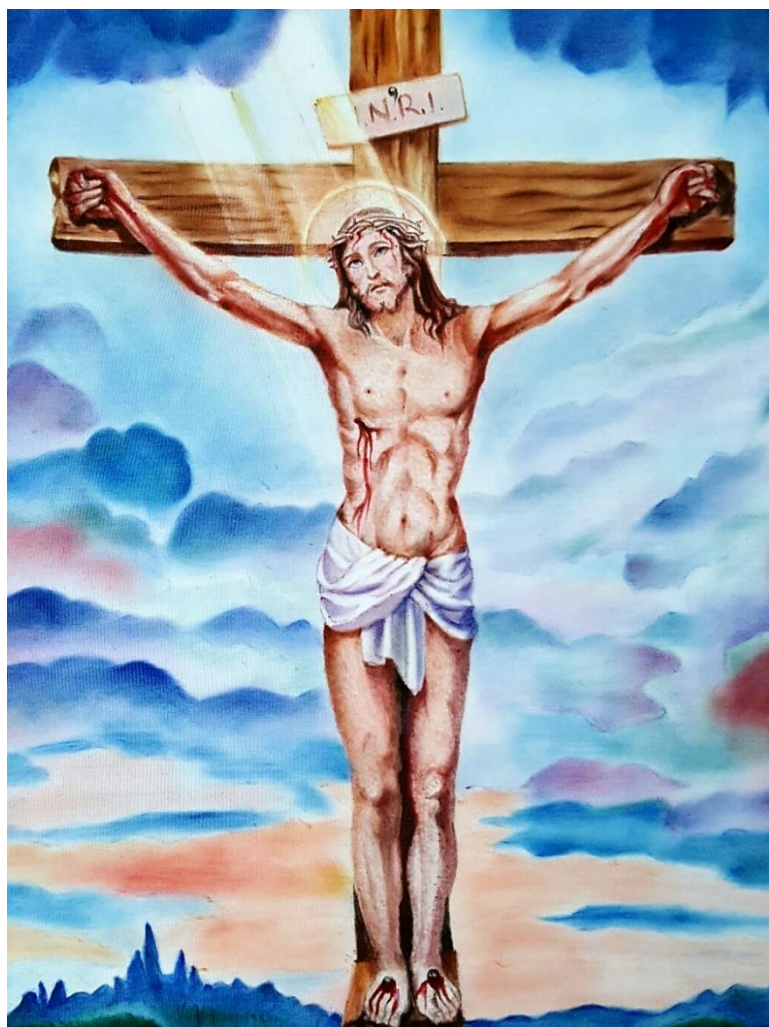
총 비행시간은 15 시간 정도 걸렸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레는 마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내린 더블린 공항에는 감사하게도 부지도교수님이 되실  
존키니박사님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숙소까지 태워주시고  
짐을 옮겨 주셨다.

한국에서 더블린으로 가는 것을 준비하며, 데클린오설리반  
지도교수님 그리고 존키니 부지도교수님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제안 받은 숙소에서 우선 지내기로 했다.

내가 처음 지내게 된 곳은 부지도교수님의 누나네 집이었다.  
나 외에도 다른 학과의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다.  
하나의 집에서 각자의 방을 사용하는 형태였다.

학교에서 걸어가기에 조금 먼 거리라는 것을 빼면 집주인도  
괜찮았고 또 다른 박사과정 학생이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었다.





## 더블린한인교회

더블린에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더블린한인교회였다.

더블린에서 신앙생활을 할 곳을 내 주변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한인교회였다.

박용남목사님께서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계셨다.

아일랜드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한인교회였다.

오전에는 아이리쉬 사람들 및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한인들이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 몇 주 동안은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갔다.

6 개월정도 아내와 아이들이 오기 전 해외에 홀로 나와서 공부하고 있으려니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임이 그리웠다.

그래서 학교나 집 근처에 주중에 예배드리는 모임을 찾았고, IFES 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성경공부 모임을 찾을 수 있었다.

매주 금요일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인 리피강 바로 너머에 위치한 임마누엘 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한시간은 공짜로 식사를 나눠주고 간단한 게임등으로 친교의 분위기를 만들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 다음 한시간은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브라이언리라는 더블린에서 가장 친하게 지낸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브라이언리는 IFES 간사님으로 미국에서왔다.

그리고 더블린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는 아텔라이데교회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학교에서 지식정보 처리에 대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틈틈이 예배모임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지낼만한 숙소를 찾았다.

가족을 기다리며 혼자 있던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더블린한인교회 분들을 차츰 알게 되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오게 되었고 집을 이사하게 되었을 때,  
한인교회 목헌장로님과 박용남목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가족과 함께 더블린에서 지내며 어느덧 3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끝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지도  
교수님께서 아직까지의 연구로는 박사학위를 받는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다.

더블린에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을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잘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구제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구제장학금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만 지원이  
가능하였다.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난 우선 박사과정을 중단하고 직장에 취직해 보기로 했다.

영국에 있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라는 곳에서 지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고, 인터뷰 결과 난 그곳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박사를 중단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세계성서공회연합회라는 주님의 일을 하는 단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블린에 있는 영국대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한 뒤 취업비자를 받고 우리 가족은 영국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는 영국의 스윈던이라는 도시로 갔다.

스윈던 내 웨스트리라는 마을에 영국 성서공회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일층을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사용하고 있다.

새롭게 다니게 된 교회는 월세로 얻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웨스트리교회였다.

지역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웨스트리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였다.

이 지역에 있는 4 개의 로컬교회 중 하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부족하여 한분의 목사님이 매주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설교해 주셨다.

한달에 한번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다른 주일들은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30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모두들 정이 많고 친절하게 우리 가족을 대해주셨다.

하지만 영어로만 드리는 예배로는 마음 깊은 곳까지 와 닿기 어려웠다.

"Jesus loves me." 영어를 들었을 때 뜻을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국어를 들었을 때,

더 깊은 곳까지 와 닿았다.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바스한인교회

이곳 스윈던에는 우리 가정을 포함하여 한국인 가정이 3 가정 밖에 없었다.

한국어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인교회를 찾았지만 이 도시에는 한인교회가 없었다.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기차로 30 분정도 떨어져 있는 바스라는 도시에 있었다.

영국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종신목사님께서 바스의 감리교회들을 담당하셨는데, 한인교회가 없는 것을 아시고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오전에는 웨스트리교회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기차를 타고 바스로 가서 한국어 예배를 드렸다.

바스 기차역에서 내리면 예쁜 영국의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기차를 틈틈이 타야 한다면 반드시 연간회원권을 사는 것이 좋다.

영국의 기차표 가격은 많이 비싸다.

하지만 회원권을 구입하면 기차표를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 명정도 모이는 바스한인교회 목사님이신 이종신목사님께서 영국에 사는 동안 우리 가족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셨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통해 영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 한국 등 성서공회들의 연합과 정보의 소통을 위해 출장을 다니며 일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 직접적으로 한다는 생각에 좋았다.

## 기적

어느날 더블린트리니티대학 지도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중단했던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원래 풀타임으로 박사과정을 하다가 1년이 지난 뒤,  
파트타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칙상 안되지만 총장님의 특별  
재가로 내 경우 박사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하셨다.

영국에서 일하며 난 기적적으로 박사과정도 이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더블린트리니티대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어느날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나에게 연락이 왔다.  
유럽의 우수한 대학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한국인들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에서 일해 볼 것을 권유하는 연락이었다.

우리 가족은 아이들의 교육, 정서적인 필요, 재정 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가 삼성전자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 좋았던 것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일 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예배들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들도 많았다.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메말랐던 예배의 갈급함을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한국에는 정말 교회가 많았다.

주변을 둘러보면 꼭 하나 이상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고 이렇게 틈틈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한국이 좋았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바빴다.

하지만 확실히 연봉, 교통, 식사, 의료, 교육등의 복지와 대우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만족하며 지냈다.

회사에서 일하며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루하루가 흘렀다.

하지만 바쁜 하루 하루 그리고 간부들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어떻게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한 토의 등 모든것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영원한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내 생각은 증인들의 호수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았다.

나의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 처럼 흘러 지나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계셨다.

힘들때 어려울때 내가 주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선 그런 나를 옆에서 지켜보며 계셨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께서선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선 그런 나를 보시며 '승화야, 내가 여기서 너를  
보며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여기있는데, 알지 못하고

에타게 찾고 있구나' 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순간 나는 다시 눈을 뜨게되었고, 내가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병에 걸려 죽은것!  
그리고 그 후 천국에 갔던것!  
그리고 나의 삶을 뒤돌아 본것!  
모두 꿈이었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생생한 꿈의 기억에 한동안 주님을 더욱 목상하며 지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꿈 속 천국의 기억도 희미해져 가던  
어느날 더블린트리니티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보낸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인도의 한 대학과 더블린트리니티대학이 국제학생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인도의 대학에서 우리학교 출신의 교수를 뽑고  
싶다는 이메일 이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뒤돌아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걱정과 염려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주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감사하게 된다.

후회없는 삶 그리고 은혜 나누는 삶을 살기로 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이미 천국을 약속 받았기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지금도 반드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이기며  
기대하는 이땅에서의 삶 되시길...



## 인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니라.

[히브리서 3 장 4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 장 1 절]

어릴때 난 신의 존재하심을 믿기 어려워했다.

그 때까지 배웠던 잘못된 과학의 울타리에 갇혀 진화론으로  
인해서 인간과 동식물들이 생겨났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진화론을 믿고 있던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확률은 수학적으로 존재할 뿐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시계이론 이란 것이 있다.

시계 부품들을 절구에 넣고 계속 휘젓다보면 부품들이 우연히 잘 조립되어 하나의 시계가 될 확율이 수학적으로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오랜시간이 흘러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기 힘든 무언가 거대한 것이라면 괜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예전 나도 수만년 수억년의 오랜시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오랜시간이 흘러도 다양한 암석 바위등이 녹아 흘러 썩인다고 생명체가 탄생하지는 않는다.

또 진화론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연속적인 진화의 증거들이 없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이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원숭이 종류는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두 구절의 말씀들은 나에게 창조자의 존재를 믿게 하였고  
신의 존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상 다음 단계로 누가  
진정한 신인지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여호와됨을 알찌어다.

[출애굽기 14 장 14 절]

아일랜드에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영국에 있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던 나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드디어 박사논문의 마지막 과정인 Viva 심사를 보게 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영국성서공회의 그라운드층을 빌려쓰고 있었다.

영국성서공회 건물에 들어가면 로비에 큰 성경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적힌 구절이 있다.

시험을 보기위해 아일랜드로 떠나기전 로비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14 장 14 절을 보게되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앞은 홍해로 막혀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셨다.

정말 두렵고 급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라고 하신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Viva 시험이 다가왔던 나에게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동안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다.

시험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해주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여호와되심을 경험 할 수 있었다.

내가 너를 겸손케하며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기적들로  
너를 이끈것은 네가 세상것들을 바라며 살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게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 장 3 절]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왔다.

정말 기적으로 주님께서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셨고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분당우리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기존신자는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다른 교회들을  
찾아보다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원천교회로 가기로 거의 마음을 정했었다.

한국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교회를 정하기 전, 우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신앙의 멘토이셨던 분당우리교회  
김성원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교회로 찾아갔다.

목사님께선 예전 우리 가족이 한국에 있었을 때, 이매교구  
목사님이셨는데 행정을 맡게 되셨다고 행정목사님으로  
웁기셨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돌아와 오랜만에 다시 뵈었을 때  
아직도 행정목사님으로 계셨다.

성도들과의 만남 보다도 서류와 친해야하는 쉽지 않은 자리에서 성실히 맡은바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웠다.

목사님께 인사드리며 얘기를 나누는 중 예전 등록교인은 기존신자여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듣게 되었고, 분당우리교회에 좋은 추억이 있던 우리 가족은 다시 분당우리교회를 다니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서 맞게되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회 문 앞에 성경구절 책갈피들이 놓여져 있었다.

나는 이번 년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그 중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 장 3 절 이었다.

정말 나의 길을 뒤돌아 볼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적들로 이끌어져 왔음을 고백하게 된다.

세상의 염려가 많은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와 닿았다.

우리의 길을 뒤돌아 보면 분명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신다.

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지금도 세상의 것들에 붙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난 고백한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큰 선물을 이미 받았다.

세상것들과 비길 수 없는 구원을 약속 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네 빛이 되시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이사야 60 장 20 절]

아일랜드에서는 더블린한인교회를 다니고 영국에서는  
바스한인교회를 다녔다.

영국에서 살던 지역은 스윈던이라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백인들이 주로 사는 잉글랜드 도시였다.

레딩과 바스 그리고 옥스퍼드 중간에 위치한 도시로 각각  
기차로 30 분 정도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스윈던에서 한인교회를 찾았지만 스윈던에서 한국인 교인은  
우리 가족밖에는 없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있던 지역인 웨스트리라는 마을에서  
로컬교회를 찾았다.

약 30 명의 마을주민들이 모여 웨스트리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

영국의 교회가 죽어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목사님이 부족해서  
우리 마을 교회를 포함하여 4 개의 교회를 한 목사님이  
담당하시고 계셨다.



그래서 한달에 1 번 또는 2 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마을 분들이 돌아가며 메시지를 나누었다.

예배는 역시 모국어로 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니 머리로의 이해가 가도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 깊숙히 와 닿지 않았다.

한국어 예배를 찾게 되었고 가장 가까운 곳의 한인교회가 바스라는 도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오전에는 웨스트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기차를 타고 바스한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영국에서 새해를 맞아 바스한인교회를 갔을 때 새해에 주시는 말씀이라며 말씀구절 책갈피를 한사람 한사람 나누어 주었다.

그 때 받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 장 20 절 이었다.

이 말씀구절을 받은 시기에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생긴 시기였다.

이 말씀은 나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내 슬픔을 마치게 하시고  
영원히 내 빛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되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에게  
슬픔은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셨을 때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 너머의 기쁨을 보고  
지금의 고통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주님의 종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할 것이라.

[이사야 65 장 13 절]

한국으로 귀국한 뒤 이제 한국에서 사용할 전화번호를 고르게 되었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KT, SK, LG 이렇게 3 개 통신사 외에도 알뜰폰이란것이 생긴것을 알게 되었다.

근처의 대리점에서 가장 가격이 싼 알뜰폰에 가입하였다.

내가 좋아하는 전화번호 끝자리는 0828 이다.

그 이유는 내 생일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성경구절 주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네자리를 마지막으로 하는 전화번호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생일날짜로 사용이 가능한 번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번호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전 바스한인교회에서 새해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 이사야 60 장 20 절 말씀의 주소를 사용하여 6020 번호를 쓰기로 했다.

다행이도 6020 번호는 사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을 원하는 번호로 만들고 나니 이번에는 중간의 네자리도 의미있는 번호를 넣고 싶었다.

난 전화번호를 나에게 의미있는 말씀 구절의 주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 구절의 주소를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고 또 자주 묵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의 주소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며 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기존 내가 기억하고 있던 성경말씀 구절들의 주소로는 가능한 번호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구절을 찾게 되었고 이사야 65 장 13 절 말씀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자녀삼아 주신다고 까지한 은혜입은 종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은 예언들을 담고 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 즉 주님의 종 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것이다.

주님의 종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할 것이다.

이 땅 가난한 곳에서 굶어 죽기도 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며  
말씀에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나도 그러한 의문을 가졌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잠간 살다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영원을 두고  
보았을 때 반드시 이루어 진다.

주님께서는 진정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육신에 대한 것,  
누구나 반드시 경험할 죽음에 대한것이 아니라 영원할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두려워 하라고 하신다.

주님의 종된 우리의 영원은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즐거울  
것을 약속 하셨다.

가시밭에 뿌리운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가복음 4 장 19 절]

세계로선교회는 관계를 통한 양육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 경우 처음에는 동원형제님이 그리고 그 이후 한필형제님, 주호형제님을 이어 지금은 종주형제님이 내 신앙의 선배로 기도해주고 계신다.

대전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간 후 종주형제님과 형수님,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다른 몇몇 부부들이 모여서 함께 부부성경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부부성경공부를 통해 세계로선교회 수양회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

그 때 나누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4 장 19 절 이었다.

나에게 와닿는 큰 찔림을 주는 말씀이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개개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해석해주실 수 있다.

나에게 와닿은 말씀의 의미는 처음 길가에 뿌리운 씨는 고집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자들이다.

즉 성경에서 그 마음이 강박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돌밭에 뿌리운 씨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뜨거운 경험들로 믿게된 분들이 약한 부분일 수 있다.

이 경우 모태신앙에게 있는 장점을 찾을 수 있다.

나도 이전 모태신앙을 못해 신앙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한순간에 믿는 경험을한 뜨거운 분들을 부러워 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분들은 또 다른 경험이나 고난에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태신앙은 비록 지금 뜨겁지 않을 수 있으나 오랜시간 꾸준히 말씀을 듣고 신앙을 키워온 내공이 있어서, 한순간의 고난이나 경험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다양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내가 약한 부분은 나에게 다가온 외부의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생각 내면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욕심이 더 큰 것 같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생길때, 그리고 재리의 유혹에 흔들릴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길때 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가 되기 위해 마음을 다시한번 다짐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었다.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천사들과 다시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마가복음 8 장 38 절]

너희가 나로인하여 끌려갈 때에 무슨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 그 때에 떠오르는 말을 하라 그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마가복음 13 장 11 절]

누구나 크리스찬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천국의 기쁨을 그리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아직 내가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되어 주심에 대한 큰 사랑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켜보면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잠깐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계속 알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때, 웬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내 모습을 보았다.

마가복음 8 장 38 절의 성경구절이 부끄러움에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없었던 나를 일깨워 주는 말씀이 되었다.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내가 아직 부족한데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될까 하는 생각인 것 같다.

복음을 전했기에 받게되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은 주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핍박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꺼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내가 전했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가진 사람 이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큰 선물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이 말씀구절을 묵상하며 내 삶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가복음 13 장 11 절 말씀구절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끌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할때 우리는 종종 불편한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영광을 크리스찬의 악한 모습으로 가리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아직 나의 욕심과 세상 권세잡은 자들로 인하여 죄 된 모습이 드러나곤 한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내 안의 죄에 대해서  
피로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복음전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된다.

귀신들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도  
한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함께하실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내 삶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

[사도행전 20 장 24 절]

누구나 살면서 좌절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환경이나 어려움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어느 여름 더블린에 있는 한양이라는 한국식당 지하에서  
기도모임을 하고 있었다.

현진, 창석, 동규, 일식, 장연 등 더블린한인교회 몇몇  
청년들이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 한국교회의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일랜드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영국에 있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

내 이력을 보니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는 내용이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위해 영국에 오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대줄테니 한번 만나자고 하였다.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들어갈 때는 비자를 검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들어갈 때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

내 경우 아일랜드 학생 비자만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이 비자에 대한 어려움 없이 세계성서공회에 가 볼 수 있었다.

세계성서공회 로비에 들어가면 큰 성경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구절이라고 적힌 사도행전 20 장 24 절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인터뷰를 기다리며 삶의 의미 및 목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던 나에게 이 말씀이 와 닿았다.

몇몇 성경 번역들은 뒷 부분의 이 일을 행할때 기쁨으로 내 삶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져있기도 한다.

이 말씀구절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할지 내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었다.

그리고 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먼저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을 제물로  
나의 죄값을 치워주시는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

당연히 이 가장 큰 은혜도 간증하고 또 내 삶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들, 뒤돌아보면 정말 은혜였음을  
느끼게하는 일들도 간증해야 한다.

분명 우리들은 살아 가면서 어느순간 뒤돌아 보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큰 은혜들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들을 간증 해야하는 사명이  
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삶의 경주를 마치기를 기도한다.

주를 사랑하는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 장 28 절]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 장 38 절]

크리스찬으로서 누구나 뒤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연과 호의를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다.

로마서 8 장 28 절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게 의미있는  
숫자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생일을 숫자로 나열한 것이다.

나는 자주 말하고 듣게되는 전화번호나 생일과 연관된  
성경구절을 알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에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살면서 내가 계획 한대로 흘러가지 않은 적이 많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잘된 경험들이 있다.

지금 이순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결국 더 선한것으로 인도해주실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구절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직 사랑을 잘 모르더라도 그 사랑 속에 있기에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한 우리를 그분께서는 가장 선하게 인도해주신다.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다.

여호와 닛시: 승리의 주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

여호와 삼마: 함께하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개인에게 가장 선하게 다가와 주신다.

이러한 표현들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다.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미 준비된 것 들을 누리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연히 만나교회를 알게 되었다.

분당우리교회에 다니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기도할  
장소가 따로 없었다는 것이다.

주중에 교회를 가보면 본당 문은 잠겨있고 기도실이라고  
지하에 만들어 놓은 곳에 가보면 위험하다고 자물쇠로 항상  
잠겨 있었다.

그래서 근처 지역에 기도의 장소를 찾던 중 만나교회를  
가보게 되었고 만나교회 본당 내 뒤편에 자리잡은 기도실을  
찾게 되었다.

만나교회는 저녁시간에도 본당문과 기도실문이 열려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회사를 마치고 만나교회 기도실에 가서 한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기도의 장소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었고, 담임목사님이 김병삼목사님이라는 것과 MEM  
영어예배를 알게 되었다.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여 김병삼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다.

그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자신이 좋아하시는 말씀구절이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8 장 38 절을 언급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구절도 내 삶에서 붙들게 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천지를 창조 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수 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 하실 수 있었던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흠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값을  
치루는 제물로 삼아 주셨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혹시 삶 가운데 죄책감, 외로움, 고통, 고난, 염려 등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분께 의지하고 안기자.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받아주실 것이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이니라.

[디모데전서 6 장 9 절]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으사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7 장 27 절]

분당우리교회를 통해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다.

이 단기선교를 인도하셨던 차오 및 유나 선교사님이 세나파티 지역에서 사역을 계획하고 계셔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 인도 내 마니푸르 주 내 세나파티 지역과 오이남 마을이란 곳으로 가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 내 여러종족 중 하나인 나가종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 땅은 인도에서 제일 높은 복음화율을 가진 지역이었다.

80% 이상이 크리스찬인 나가종족은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와 땅을 가졌고 인도, 중국, 미얀마 등에 걸쳐 나누어져 있었다.

이들은 인도와 미얀마 등에 교회들을 세우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다.

크리스찬이 80%가 넘는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보다 이미 믿는 자들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사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기선교를 떠났다.

인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가종족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땅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을 견고히 세운다는 생각은 내 교만이였다.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그리고 모든 민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단기선교를 떠날때 예전 성서공회에서 선물로 받은 신약성경 MP3 플레이어를 들고 갔다.

그리고 이 단기선교 목표중의 하나로 신약성경을 제대로 한번 다 들어보기로 하였다.

저녁마다 단기선교 일정을 마치고 나는 신약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 장 9 절, 히브리서 7 장 27 절 말씀구절들을 받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재리에 대한 욕심이 떠오를 때마다 디모데전서 6 장 9 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까지 말씀 하셨는데, 내가 돈에 대한 세상의 염려를 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할 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워주시기 위해서 제물되어 주셨다.

이 사실은 귀신들도 잘 알고 떨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예수님을 제물로한 제사를 주님께 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단지 예수님이 제물 되셨음을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된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지낼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주님이시다.

단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

내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살면서 우리는 자신을 어렵게하는 사람을 분명 만나게 된다.  
모두가 아는 얘기겠지만 중요한 성경속의 예화가 있다.

왕에게 1 만달란트 빚진자가 그 빚을 갚지 못했지만 은혜로 그 빚을 탕감 받았는데, 자신은 용서받았지만 자신에게 1 백 데나리온 빚진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왕에게 끌려가 죄값을 받는 이야기다.

현재 단위로 바꿔보면 4 조원의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자신에게 700 만원의 빚을 갚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죄값을 치루게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를 은혜로 용서 받았다.

이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빛진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보다 클 수 없다.

아무리 큰 세상의 빛이라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선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작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주님께서는 함께 주의 자녀된 네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신다.

이기는자 곧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요한계시록 2 장 26 절]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였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참석했던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요한계시록 2 장 26 절  
말씀구절을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살면서 항상 붙드는 말씀이 되었다.

나에게는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 보다는 주님께서 이긴다고  
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생각 해보게 하는 말씀 이었다.

다른 번역들과 이 전 구절을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고 이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주님의 일을 시작했는가...

끝까지 그 일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지키며 삶의 경주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 딸아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다.



말씀구절

말씀구절



